

석 사 학 위 논 문

북미 화인화문작가 黃運基의 장편소설  
《奔流》에 나타난 하층 화인의 삶



김 다 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중국어교육학전공

2021년 8월

북미 화인화문작가 黃運基의 장편소설  
《奔流》에 나타난 하층 화인의 삶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김다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중국어교육학전공

지도교수 김혜준



김다슬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6월 21일

위원장

최진아



위원

弓曉琳



위원

김혜준



## 〈목 차〉

한글초록 .....	ii
제1장 머리말: ‘草根文學’ 《奔流》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제2장 ‘草根文學’의 대표작품 《奔流》의 창작 배경 .....	8
제1절 《奔流》 작가 黃運基의 생애 .....	8
제2절 《奔流》 창작 동기 및 창작 관념 .....	11
제3장 《奔流》에 나타난 이주현실의 재현 .....	16
제1절 화인의 이주와 정착 .....	16
제2절 차이나타운과 화인의 생활 .....	27
제4장 《奔流》에 나타난 풀뿌리적 모습 .....	36
제1절 화인의 사회적 지위와 풀뿌리적 모습 .....	36
제2절 화인사회의 특징과 풀뿌리적 모습 .....	43
제5장 맷음말: ‘草根文學’ 《奔流》의 의의 .....	51
【참고문헌】 .....	55
중문초록 .....	58

# 북미 화인화문작가 黃運基의 장편소설 《奔流》에 나타난 하층 화인의 삶

김 다 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중국어교육학전공

요약

화인은 중국 외의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한족 및 사실상 한족에 동화된 중국 출신 일부 소수종족을 말한다. ‘화인문학(華人文學)’은 이런 화인의 문학을 말하며, ‘화인화문문학(華人華文文學)’이란 화인문학 중에서도 ‘화문(華文)’을 사용한 문학을 말한다. 북미의 화인화문문학은 거의 자체적인 문학 활동이 없었던 화인노동자(쿨리)들의 시기로부터 시작하여 1세대 유학생 시기, 1960년대 타이완 출신 화인작가의 시기 등을 거쳐 차이나타운 하층 화인의 삶을 다룬 ‘풀뿌리작가군(草根文群)’이 등장한다. ‘풀뿌리작가군’은 북미의 화인화문문학에서의 독특한 창작집단 혹은 창작계층으로, 이들은 미국 사회의 밑바닥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고군분투하였으며 자신들의 작품에 미국 하층 화인들의 생활 조건 및 생각과 감정을 깊이 반영한다. 본고에서는 ‘풀뿌리작가군’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 사람인 황원지(黃運基)의 장편소설 《격류(奔流)》를 통해 작품 속에 나타난 하층 화인의 삶을 분석하였다.

황원지는 1948년 그가 16살이 되던 해에 먼저 미국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던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그는 미국에서 하층 화인으로 살며 다양한 노동을 해야만 했는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밤낮없이 지식을 추구하였다. 이는 그가 평생 동안 문화 사업을 추구하게 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는 생활이 조금 나아지면서부터 신문이나 간행물에 글을 기고하기 시작하여 문학을 알리고 문학을 창작하는 것에 힘을 쏟았다. 그리고 황원지는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격류》를 완성하게 된다. 황원지는 《격류》의 맷음말에서 자신의 작품이 허구인 동시에 현실을 묘사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의 말처럼 작품에는 도입부터 결말까지 미국으로 이주한 화인들의 삶이 사실적으로 드러난다.

미국으로 건너온 대부분의 초기 화인 이주자들은 금광 채굴, 철도 부설 등에 종사하는

미국 서부 개발을 위한 노동자였으며,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교육 및 문화수준이 낮은 사람들이었다. 당시 미국의 임금 수준은 중국의 10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기에 가난한 이들은 아메리칸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의 이주를 결심하였고, 먼 바다를 건너 미국이라는 새로운 곳에서 정착하여 살아가기 시작했다. 《격류》에는 미국으로의 이주와 정착의 과정에서 화인이 겪었던 고난이 사실적으로 재현된다. 그들의 고난은 중국에서의 빈곤에서부터 시작하여 미국에서의 차별과 고통으로까지 이어진다. 황원지는 작중 인물이 미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서술하는 것과 동시에 미국으로 이주한 초기 화인들이 삶의 여정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이주와 정착의 경험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서술하였다.

또한 작품에는 차이나타운의 모습과 차이나타운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화인의 모습이 사실적으로 재현되어 있다. 초기 화인 이주자는 주로 차이나타운에서 생활하며 중국어, 중국식 생활방식, 중국 관습을 유지했다. 이들에게 차이나타운은 중국식 사회, 문화, 여가활동의 중심지였고, 중국에 있는 가족과 마을을 연결하는 통로였다. 작품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잘 그려내었고, 이를 통해 당시 미국 차이나타운에서 생활하던 화인들의 모습까지도 생생하게 재현한다.

《격류》에서는 장기간 사회의 하층부에서 살아가야만 했던 하층 화인의 사회적 지위를 볼 수 있다. 작품에는 화인이 백인에게 동등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인종차별의 대상이 되는 현실이 드러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가며 한 가지 이상의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나간다. 작품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지위와 하층민의 경험으로 인해 스스로를 하층민으로 제한하고 살아가는 모습도 나타난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불가피한 한 가지 하층민의 특징 즉 풀뿌리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작품에서는 이러한 풀뿌리적인 모습으로 인해 자신 스스로 백인과의 사회적 지위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과 어떤 부당한 일에도 참고 인내하는 것, 그리고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화인이 중국을 떠나 미국에 정착하게 된 원인으로는 크게 가난으로 인한 생계 문제, 중국의 정치적 불안정, 미국의 노동력 수요 급증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화인 노동자의 값싼 노동력이 백인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본 백인의 화인 노동자 배척 주장에 따라 1882년 미국은 ‘중국인 배척법’을 시행하여 화인 노동자의 입국을 제한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 사회에 만연하게 된 화인에 대한 차별은 화인의 심리에 조국 중국에 대한 마음과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화인사회에는 그러한 특징이 잘 나타난다. 작중 인물들은 화인사회를 중심으로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어나가고, 중국이 잘 되길 바라며, 화인사회 내부의 갈등도 극복하고자 한다.

풀뿌리 경험의 표현과 재현은 북미의 화문문학의 무시할 수 없는 한 가지 흐름을 대표하며, 유학생문학, 지식인문학(중산층문학), 자유주의문학과 함께 전체 미화문학의 역사지도를 구성한다. 황원지의 작품 『격류』는 이러한 점에서 연구되어야 할 대표적인 ‘풀뿌리문학’ 중 하나이다. 작품에는 도입부터 결말까지 다양한 방면에 걸쳐 미국으로 이주하여 정착했던 하층 화인의 삶이 드러나며, 작가 황원지의 기억 속에 있는 당시의 모습이 재현되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앞으로 미화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주현실의 삶을 현실적으로 묘사한 ‘풀뿌리문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풀뿌리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인 『격류』는 지금도 그렇듯 훗날에도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사적, 문화적 자료로써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제1장 머리말: ‘草根文學’ 《奔流》 연구의 배경과 목적

‘화인화문문학(華人華文文學)’은 화인이 화문(華文)으로 창작한 문학을 일컫는다. 여기서 화인이란 중국 외의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한족 및 사실상 한족에 동화된 중국 출신 일부 소수종족을 말한다.<sup>1)</sup>

아편전쟁 이전 중국인 해외 이주자는 약 1백만 명이었고 주요 이주 대상지는 아시아였다. 그 후 이주자가 급증하기 시작하여 19세기 말에 이르면 대략 5백만 명에 달하게 되고, 1940년대 말에는 1천만 명을 넘어서게 됨과 동시에 이주 대상지 역시 아시아를 넘어 멀리 유럽·미주·호주·아프리카에 이르게 되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세계 각지에 산재하는 중국계 해외 이주자인 화인 인구가 4천만 명 이상일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처럼 세계 각지에 산거하는 화인 집단에서, 비록 과정과 규모 및 성격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자체의 문학 활동과 창작이 전개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중에서도 비교적 현저한 궤적을 남긴 곳은 동남아와 북미 지역이었다.<sup>2)</sup>

북미의 화인화문문학(이하 미화문학이라고 약칭함)의 역사는 기존의 황완화(黃萬華)의 주장과 같이 크게 네 시기로 구분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비교적 용이하고 간명하기에 시간적 구분이라는 측면에서 참고할 수 있다.<sup>3)</sup>

먼저 제1기는 20세기 전반 주로 중국 신문학에 관여했던 후스(胡適), 천형저(陳衡哲) 등에서부터 린위탕(林語堂), 량스치우(梁實秋) 등까지 1세대 유학생 시기이다. 초기 문학적 형태는 서간문, 일기의 형식으로 창작되었는데, 문학성을 띤 것으로 여겨지는 작품들은 주로 중국 대륙에서 ‘5·4’ 이후 유학생들이 미국을 오가며 창작했던 작품들을 주축으로 하게 되며 이는 주로 1910년부터 1930년 무렵이다. 주로 중국 대륙 출신의 북미 유학생들이었던 이들의 활동이 중심이 되었던 이 시기 대표적인 작가로 우선 후스가 있는데, 그는 《상시집(嘗試集)》을 미국에서 완성했다. 이어 원이둬(聞一多)의 《유미통신(留美通信)》, 《세의가(洗衣歌)》, 천형저의 소설 《가랑비(小雨點)》 등도 미국 유학시절 창작되었다. 이중 원이둬가 쓴 《세의가》는 미국 화인들의 지난한 삶과 동정어린 시선을 담고 있는데, 이 작품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중국 대륙의 정치적 문화적 변화에 관한 내용이

- 
- 1) 김혜준, <북미 화인화문문학에 나타난 초국적 화인 가정과 그 의의>, 《중국현대문학》 제29호, 서울: 중국현대문학학회, 2020.1.
  - 2) 김혜준, <화인화문문학 연구를 위한 시론>, 《중국어문논총》 제50집, 서울: 중국어문연구회, 2011.9, pp.77-116.
  - 3) 고혜림, <북미 화인화문문학의 역사와 시기구분>, 《중국학논총》 제38집, 서울: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12.

주종을 이루었다.

다음 제2기는 1945년부터 1950년대 말까지의 시기로 이 시기 미국에서는 ‘중국인 배척법(Chinese Exclusion Act, 排華法案)이 철폐되었다. 이로 인해 중국 대륙에서부터의 유학생이 급증했고 중국 대륙의 항전문학의 영향으로 북미 지역에서도 항일문예운동이 꽃을 피웠다. 다양한 문예단체들의 활동이 있었고 이에 따라 북미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화문문학이라는 개념이 형성된 시기였다.

그리고 제3기는 20세기 중후반 이 지역 화인화문문학의 독자성이 확립되어 가던 가운데 뿌리 없는 유랑감·역사적 상실감·현실적 소외감·문학적 곤혹감을 표현했던 바이센옹(白先勇), 우리화(於梨華), 네화링(聶華苓), 예웨이롄(葉維廉) 등 주로 타이완출신 2세대 유학생이 주도하던 ‘타이완작가군(臺灣文群)’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타이완출신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하면서 대량의 작품을 쏟아내었는데, 소설들이 영어로 번역되고 다시금 중국 대륙과 타이완으로 역수입되었던 시기를 문학의 한 차례 고조기로 상정할 수 있다. 그중에서 바이센옹의 《뉴요커(紐約客)》, 장시궈(張系國)의 《어제의 분노(昨日之怒)》와 함께 우리화는 1960년대 초 대표작인 《다시 종려나무를 보다(又見棕櫚又見棕櫚)》를 통해 유학생 문학의 시초가 되었음은 물론이고 특히 《아주주간(亞洲週刊)》에서 선정한 20세기 중국소설 100선에 자신의 작품과 더불어 이름을 올렸다.<sup>4)</sup>

마지막으로 제4기는 1990년대 초반 무렵을 제4기의 시작으로 구분하면 이 시기는 타이완으로부터의 작가군과 중국 대륙 및 홍콩으로부터의 작가들의 북미 지역에서의 활동도 점차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한다. 제3기의 북미 화인화문문학은 타이완 출신 작가들이 중심이 되었으나 제4기 이후로는 이민 2세와 이민 3세들의 등장과 타이완 이외의 중국어 문화권 출신 디아스포라 작가들의 활동이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시간이 갈수록 이들의 창작 활동이나 문학작품은 초기의 작가들이 강조했던 고향으로의 회귀나 상실의 문제, 정체성의 혼란과 같은 문제보다는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인성을 탐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을 띤다.

북미의 화인화문문학은 지역의 작가들의 모임과 학술단체들을 기반으로 하여 점차 영역을 확대해갔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들을 거쳐 차이나타운 하층 화인의 삶을 다룬 ‘풀뿌리작가군(草根文群)’이 등장한다.<sup>5)</sup> ‘풀뿌리작가군’은 미화문학에서의 독특한 창작집단 혹은 창작계층으로, 기존의 자료에 의하면 작가 겸 평론가인 종잉(宗鷹)이 가장 먼저 이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는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미국으로 이주한 신이주민으로서, 1997

4) 고혜림, <북미 화인화문문학의 역사와 시기구분>, 《중국학논총》 제38집, 서울: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12.

5) 김혜준, <화인화문문학 연구를 위한 시론>, 《중국어문논총》 제50집, 서울: 중국어문연구회, 2011.9, pp.77-116.

년에 《미화문단에서 본 ‘풀뿌리작가군’의 탄생(從美國華文文壇看“草根文群”的崛起)》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현재 미국 중국 문학계에는 중국의 고령 작가와 중국 본토 신인으로 구성된 ‘풀뿌리작가군’이 등장하고 있다. 내가 멋대로 ‘풀뿌리(草根)’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반드시 적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문학 작가군의 작가들은 미국 사회의 밑바닥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고군분투해 왔으며, 그들의 작품은 ‘노동에 의존’하고, 미국 하층 화인들의 생활 조건 그리고 생각과 감정을 깊이 반영한다.<sup>6)</sup>

이러한 그의 담론은 지금까지 찾아볼 수 있는 ‘풀뿌리작가군’에 대한 최초의 소개라고 할 수 있으며, ‘풀뿌리작가군’의 특색에 대해 처음으로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풀뿌리작가군’은 미화 문학의 다른 작가 집단에 비해 늘 밑바닥에 입각해 가장 평범한 하층 화인에 주목하는 독특한 의미를 지닌다.<sup>7)</sup> 이러한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풀뿌리(草根)’라는 용어의 의미와 이들이 그 이름을 따서 명명된 이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풀뿌리(grass roots)’라는 단어는 19세기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그 시기 미국은 골드러시 광풍이 불었고, 당시에 산맥의 토양 표층인 풀뿌리가 무성하게 자라나는 곳 밑에 황금이 있다고 전해졌기 때문에 풀뿌리는 사람들이 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흥미롭게 이야기되었다. 그리고 한동안 이 단어는 자연스럽게 흥성하게 되었다. 이후에 ‘풀뿌리’라는 단어가 점차 사회학 분야로 도입되었고, ‘기층민중’이라는 함의가 부여되었다. 이 단어에는 2가지의 의미가 담겼는데, 하나는 정부 또는 정책 결정권자에 반대되는 세력을 말하며, 또 다른 하나는 주류, 엘리트 문화 또는 엘리트 계층에 대응하는 약한 계층을 의미한다. 루구쑨(陸穀孫)이 편집한 《영한대사전(英漢大辭典)》에는 ‘grassroots’를 하나의 단어로 배열했는데, 그 뜻은 첫 번째로, ‘군중의’, ‘기층의’라는 뜻이며, 두 번째로 ‘시골 지역의’, 세 번째로 ‘기초의’, ‘근본의’라는 뜻이다. 이에 따르면, ‘풀뿌리(grassroots)’의 내재적 지향은 하나의 집단으로, 사회 밑바닥(저층), 다수에 기초한 사람들 및 그 문화, 가치, 언론 체계 등등, 이 집단들의 특징은 주로 하층성, 통속성, 그리고 평민성에 나타나고 있다.<sup>8)</sup>

- 
- 6) 當前，在美華文壇上，正在崛起一個以老僑作者和大陸新僑作者構成的“草根文群”。我妄自冠以“草根”之名，未必得當。但是，這個文群的作家，長期或較長期地生活奮爭在美國社會底層，他們的創作“以勞養文”，他們的作品又較深入地反映了美國華人“草根”層人們的生活境遇和思想感情。宗鷹，〈從美國文壇看“草根文群”的崛起〉，《走向21世紀的世界華文文學》，1999。
- 7) 冉毓玲，〈美華“草根文群”的唐人街書寫〉，《暨南大學》，2016。
- 8) 陳涵平，吳奕錡，〈簡論美華文學中的“草根文群”〉，《廣東教育學院報》第26卷 第4期，廣東：廣東教育學院，2006.05。

종잉이 제시한 ‘풀뿌리작가군’의 명칭은 위의 이해를 기초로 해야 하는데, 이는 그가 서술한 관점에서 이 작가군이 ‘미국 하층 사회’에서 생활하며, 하층민의 일을 묘사하며, 하층민적 삶의 고충을 드러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sup>9)</sup> 이처럼 ‘풀뿌리작가군’은 장기간 미국 사회의 밑바닥에서 살아야 했던 하층 화인들의 생활 모습과 정서가 반영된 것이 창작의 중심이 되었다.<sup>10)</sup> 종잉은 기존의 다른 화인화문창작단체(화인 작가들)와 비교하여 ‘풀뿌리작가군’이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연구를 시작했다. 그는 비록 이 문학 집단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글을 통해 ‘풀뿌리작가군’의 기본 구성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이 창작집단의 구성원은 주로 중국 대륙 출신이며,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미국으로 이주했다.<sup>11)</sup> 이들은 기술이민이나 경제이민도 아니었고, 문화이민 혹은 엘리트이민도 아니었으며, 단지 종족, 혈연, 결혼, 노무 등의 관계로 본토를 떠나온 사람들이었기에 타국에 온 후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부족하여 일종의 본질적인 약점을 형성하였다.

둘째, 이들은 미국에 온 후 오랫동안 사회 밑바닥에서 살았고, 생계를 위한 투쟁을 하며 하층사회의 삶을 맛보았는데, 이는 문화적 수준이 높은 유학생들이 몇 년간의 어려운 학업을 끝내고 학위를 취득한 후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 일정기간 후에 미국의 ‘중산층’이 될 수 있는 것과 다른 것이었다.

셋째, 이 구성원들은 또한 힘든 생활의 남는 시간에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 손에 펜을 들어 모국어인 중국어를 사용하여 이민 생활에 대한 감정을 창작으로 표현하는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들의 창작은 그 어떤 실리적인 목적도 없으며, 그중 대부분은 ‘이노 양문(以勞養文)<sup>12)</sup>’이었기에, 그들의 창작은 본질적으로 일종의 정신적 탐구나 심리적 표출이었다.<sup>13)</sup>

위의 조건에 따라 ‘풀뿌리 작가군’의 작가 명단을 길게 열거하면 황원지, 거원(戈雲), 귀평(果風), 천중메이(陳中美), 류쯔이(劉子毅), 천궈잉(陳國英), 류황톈(劉荒田), 청바오린(程寶林), 왕싱추(王性初), 라오난(老南), 종잉(宗鷹), 잔워(展我), 정치센(鄭其賢), 쑤이청(穗青), 천쉐단(陳雪丹), 황원샹(黃文湘), 우뢰이칭(吳瑞卿), 위안팡(遠方), 천치자(陳齊家), 덩타이허(鄧泰和), 이리(伊犁), 위궈잉(餘國英), 쉬츠잉(許赤嬰), 왕밍위(王明玉), 쉬페이건

9) 陳涵平, 吳奕錡, 〈簡論美華文學中的“草根文群”〉, 《廣東教育學院報》第26卷 第4期, 廣東:廣東教育學院, 2006.05.

10) 卢毓羚, 〈美華“草根文群”的唐人街書寫〉, 《暨南大學》, 2016.

11) ‘풀뿌리작가군’ 중 황원지가 유일하게 개혁개방 이전인 1948년 미국으로 이주한 작가이다.

12) 생계를 위해 일을 하며 문화예술 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13) 陳涵平, 吳奕錡, 〈簡論美華文學中的“草根文群”〉, 《廣東教育學院報》第26卷 第4期, 廣東:廣東教育學院, 2006.05.

(許培根), 량잉린(梁英麟), 자오스홍(招思虹), 우커픽(伍可娉), 랑페이츠(梁培熾), 우위스(伍鬱仕), 뤄홍(呂紅), 청닝(曾寧), 씨에웨이런(謝為人), 리궈송(李國雄), 위쉐(餘雪), 천시웬(陳錫萱), 천다저(陳大哲) 등으로 볼 수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풀뿌리작가군’의 작가들은 그들의 노력과 끈기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황원지의 소설 《격류(奔流)》, 《광란(狂潮)》과 류황톈의 기록문학 《‘황금몽’삼부곡(“黃金夢”三部曲)》, 시집 《샌프란시스코 서정(舊金山抒情)》, 《북미의 하늘(北美洲的天空)》 및 《속세의 미국(美國紅塵)》 산문 시리즈, 라오난의 소설집 《대저택 기연(豪宅奇緣)》, 청바오린의 장편소설 《미국이라는 무대(美國戲臺)》, 왕싱추의 시집 《달의 사춘기(月亮的青春期)》, 《외로운 여행(孤之旅)》, 산문집 《접상(蝶傷)》, 류쯔이와 천궈잉 부부의 산문집 《8년의 단잠 아메리칸드림(八年一覺美國夢)》, 《사랑의 장원(愛的莊園)》, 쑐이칭의 장편소설 《미녀 이민기(佳麗移民記)》, 《금산유약(金山有約)》, 종잉의 소설집 《월곡정도(月曲情濤)》, 산문집 《이국타향의 달 밝은 날(異國他鄉月明時)》, 우커픽(伍可娉)의 장편소설 《‘금산백’의 여인(金山伯的女人)》, 자오스홍의 작품집 《금산의 길(金山之路)》 등은 모두 무게감 있고 영향을 끼친 작품들이다. 그리고 다른 많은 ‘풀뿌리작가군’의 작가들이 소설, 시가, 산문 등의 방면에서 많은 작품을 썼는데, 이들의 창작성과는 이 작가군의 강력한 포괄적인 힘과 광범위한 영향력을 충분히 보여준다.<sup>14)</sup>

중국 대륙에서는 ‘풀뿌리작가군’에 대한 연구가 이미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선행 연구에는 먼저 ‘풀뿌리작가군’ 작가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작가들에 대해 소개하고 창작 방법, 작품의 내포 등에 대해 개괄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화인 작가그룹의 창작 중에 ‘풀뿌리 의식’과 일반적인 역사적 서사를 분석한 것이 있다. ‘풀뿌리작가군’ 개별 작가에 대한 연구 중 가장 주목받으며 성과가 많은 두 인물로는 황원지와 류황톈이 있으며, 이들의 특정 작품에 대한 분석과 해석 등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있다. 황원화가 편집한 《미국화문문학론(美國華文文學論)》에서는 두 가지 부분에서 ‘풀뿌리작가군’을 다루고 있으며, 제4편 ‘풀뿌리작가군 연구(草根文群研究)’에서는 류황톈, 우뢰이칭, 규평, 이리, 종잉, 라오난, 왕싱추, 류쯔이 등의 작가들의 창작에 대해 각각 논의하고, 제6편 ‘장편소설 《격류》에 대한 해석(文本詮釋：關於長篇小說《奔流》)’에는 《격류》에 대한 14개의 학술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이외에도 ‘풀뿌리작가군’ 관련 문학 출판물에 대한 연구도 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창간된 《미화문화인보(美華文化人報)》(1998년 《미화문학(美華文學)》으로 개간)은 ‘풀뿌리작가군’의 주요 문학적 활동의 장이며, 이에 대한 연구도 중국 국내에는 이미 진행되었다. 전반적으로 ‘풀뿌리작가군’에 대한 연구는

14) 陳涵平, 吳奕鎬, 〈簡論美華文學中的“草根文群”〉, 《廣東教育學院報》第26卷 第4期, 廣東:廣東教育學院, 2006.05.

이 작가군의 주요 특징이나 구체적인 작가 등에 집중되어 있다.<sup>15)</sup>

이처럼 중국 대륙에서의 ‘풀뿌리작가군’에 대한 연구는 특정 작가에 다소 편중되었다고 해도 이미 다양하게 진행되었으며, 앞으로 화인화문문학 또는 ‘풀뿌리작가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계속해서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다르다. 현재 한국에서는 앞서 언급했던 1960년대 타이완 출신 화인작가의 화인화문문학 등에 대한 연구는 일부 진행되었지만, ‘풀뿌리작가군’ 또는 ‘풀뿌리문학’에 대한 연구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마찬가지로 작가 황원지와 소설 《격류》에 대한 선행 연구도 없으며, 이와 관련된 자료조차 찾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한국 최초로 ‘풀뿌리작가군’에 대해 소개하는 것과 소설 《격류》를 연구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풀뿌리문학’ 또는 황원지에 대한 연구가 중국 대륙 학자들의 관점이 아닌 화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외국인의 관점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고는 한국에서 가장 처음 미화문학의 ‘풀뿌리문학’과 황원지에 대해 소개하는 것과 동시에 대륙 외의 지역에서 대륙 학자들과 다른 관점으로 진행되는 선행 연구로써의 가치를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의 경험과 미화문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황원지의 작품 《격류》를 연구하여, 기존의 평가와 다른 가치를 찾아내고자 하였으며, 이후 ‘풀뿌리작가군’ 연구에 사용될 용어를 처음 국문으로 정립하고, 《격류》의 내용을 번역하여 훗날 연구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사용 판본으로는 황원지의 《격류(奔流)》(1996)를 사용하였으며, 그 외 황원지의 기타 작품을 참고하였다.

황원지의 《격류》를 연구하고자 선택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황원지는 오랜 기간 미국에서 살았으며, 미국에서의 화인들의 역사적인 고난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가 있기 때문에 하층 화인의 모습과 역사적인 배경을 함께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란위링(冉毓羚)(2016)에 따르면 ‘풀뿌리작가군’ 중에서 황원지는 다른 작가들보다 비교적 더 오래된 이민 역사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작가이다. 보통 ‘풀뿌리작가군’의 작가들은 ‘중국인 배척법’이 폐지된 후 미국에 이주하였다. 물론 그 시기에도 여전히 중국인에 대한 인종 차별이 있었지만, 그들이 느꼈던 사회적 압력은 황원지가 미국 이주 초기에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덜했을 것이다. 황원지가 《격류》의 시리즈 소설인 《이향삼부곡(異鄉三部曲)》<sup>16)</sup>을 창작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랜 기간 정치적 이념의 영향으로 차이나타운 사회의 변덕을 목격했기 때문이다.<sup>17)</sup>

15) 冉毓羚, 〈美華“草根文群”的唐人街書寫〉, 《暨南大學》, 2016.

16) 장편소설 3부작으로 제1부가 《격류(奔流)》이다.

‘풀뿌리작가군’의 창작 대열에서 대부분의 작가들은 ‘중국인 배척법’의 폐지와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출국한 이주자들에 속한다. ‘풀뿌리문학’의 선구자로 불리는 황원지는 그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중국 개혁개방 이전에 미국으로 이주한 화인이라고 할 수 있다. 1948년 16세의 황원지는 아버지를 따라 바다를 건너 미국으로 건너갔으며, 그로부터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차이나타운 사회의 변화를 목격했다. 그러한 이유로 황원지는 ‘풀뿌리작가군’ 중 미국에서 가장 오래 거주하고 가장 복잡한 경험을 가진 이주 화인으로서 그의 작품을 통해 1940년대 이래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의 거의 완전한 모습을 보여준다.

둘째, ‘풀뿌리문학’의 발원지라고 여겨지는 중국 문학예술 잡지 《미화문학》을 직접 창간하였으며, ‘풀뿌리작가군’의 선봉이라고 불리기 때문이다. 황원지는 1995년 라오난, 왕싱추 등과 함께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 화인 문단의 유일한 순수문학지인 《미화문화인보》를 창간하여 ‘풀뿌리작가군’의 주요 문학 기지로 활약할 수 있게 했다. 이후 1998년 《미화문화인보》는 잡지명을 《미화문학》으로 변경하였다. 《미화문학》은 ‘풀뿌리작가군’의 주요 문학적 활동의 장이었으며, 이를 통해 ‘풀뿌리문학’이 꽃을 피울 수 있었다.<sup>18)</sup> 실제로 앞서 소개했던 대표적인 ‘풀뿌리작가군’의 작가들은 모두 《미화문학》을 통해 작품 활동을 했기 때문에, 황원지가 《미화문학》을 창간하지 않았더라면 ‘풀뿌리작가군’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풀뿌리문학’의 대표작인 황원지의 소설 《격류》를 통해 20세기 미국으로 이주한 화인들의 이주가 어떠한 환경과 요인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미국에서 화인들이 겪어야 했던 이주 과정과 정착 환경, 그리고 차이나타운에서의 생활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작품에 나타난 하층 화인의 미국에서의 사회적 지위와 그로 인해 생겨난 풀뿌리적 모습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 화인사회를 통해 이를 극복하고 자신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며 미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하층 화인의 삶을 분석하고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격류》에서 작가 황원지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유추하고, 북미 화인학문학에서 《격류》가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그 의의를 알아볼 것이다.

17) 冉毓羚, 〈美華“草根文群”的唐人街書寫〉, 《暨南大學》, 2016.

18) 冉毓羚, 〈美華“草根文群”的唐人街書寫〉, 《暨南大學》, 2016.

## 제2장 ‘草根文學’의 대표작품 《奔流》의 창작 배경

### 제1절 《奔流》 작가 黃運基의 생애

황원지는 1932년 광동성(廣東省)의 더우먼현(鬥門縣)에서 태어나 매우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는 5살의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었는데, 그때 당시 아버지는 노동자 신분인 쿨리로서 아직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다. 때문에 그는 세 살 난 여동생과 가난한 친척집을 전전하며 그들 집에 얹혀살아야만 했으며, 어린 시절 내내 소를 방목하고, 돼지 분변을 치우고, 벽돌을 고르는 등 그 당시 가난한 농촌 아이들이 했던 고된 일을 다 해보며 살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나는 어린 시절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는 어린 시절이 그에게 어떠한 즐거움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저 가난과 굶주림과 비참한 기억만을 남겼기 때문이다.<sup>19)</sup> 이러한 어린 시절 삶의 경험은 그의 작품에도 큰 영향을 주었고, 《격류》에 등장하는 인물 중 하나인 위넨주의 삶에는 그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그의 작품 속에는 자신의 어린 시절 중국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 겪었던 차별의 경험, 그리고 미국에 정착하며 확인으로서의 경험과 그의 문화적 활동 등 전반적인 그의 삶이 대거 투영되어 있다.

1948년 황원지가 16살이 되던 해에, 먼저 미국에서 주방보조로 일하던 아버지가 고향으로 돌아와 그를 미국으로 데리고 가게 된다. 아버지를 따라 미국 땅에 발을 딛게 된 그는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삶도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았다. 그가 막 미국에 도착했을 때 샌프란시스코의 출입국 관리소에서 불법 심사로 보름 정도 구금되었던 것이 바로 그가 미국에서 겪은 차별의 시작이었다. 그는 심문관에게 이름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하여 동네에 몇 가구가 사는지, 몇 개의 우물이 있으며, 집안에는 몇 개의 계단이 있는지 등등 취조에 가까운 심문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19) 제2장은 주로 황원지(黃運基)와 관련한 아래의 자료를 근거로 서술함.

陳瑞琳, 〈美華文學的一座豐碑〉, “瑞琳讀書”, 2013.

戴翊, 〈新視角、新主題和新的藝術形象——讀黃運基的長篇小說《異鄉曲》第一部《奔流》〉, 上海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5卷, 第2期, 1998.4.

黃運基, 《奔流》, 沈陽出版社, 1996.

劉小新, 〈草根意識與歷史敘事——以舊金山華人作家群為中心〉, 《江蘇大學學報》, 第04期, 2006.

徐迺翔, 〈魂系中華、心連祖國的情結——評黃運基的《奔流》〉, 社會科學輯刊, 1996.

徐乃翔, 〈一個真誠的人——記美國華文作家黃運基〉, 《華文文學》第01期, 1998.

熊國華, 《美國夢——美籍華人黃運基傳奇》, 花城出版社, 2002.

楊雅麗, 〈黃運基小說創作的草根心態〉, 《暨南大學》, 2006.

차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살아가기 위해 그저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황원지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교를 일찍 자퇴하여 학업을 중단했지만 스스로 끊임 없이 배움을 추구해나갔다. 그는 문화, 역사, 철학, 문학예술에 관한 서적을 광범위하게 읽었으며, 특히 미국에서의 생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영어공부도 계속하였다. 그는 또한 생계를 위해 식자공, 청소부, 종업원, 꽃 재배 등의 주로 하층민들이 하던 하층 노동을 해야만 했는데, 이렇게 생계를 도모하면서도 스스로 밤낮없이 지식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황원지의 일생 동안의 발전과 성공에 중요한 기초가 되었으며, 그 후 그가 평생 동안 문화 사업을 추구하게 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미국 시민이었던 황원지는 군에 징집되어 군 복무를 하게 되었다. 그는 군 복무 중에 미국이 세계 인구 14%인 중국의 존재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중국과 미국이 외교 관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였는데, 그 당시 미국은 매카시즘(McCarthyism)<sup>20)</sup>이 횡행하던 시기였기에 그의 이런 언행은 ‘반미행위’로 간주되어 군사법정에 회부되었고 최종적으로 ‘불명예제대’ 판결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그가 쓴 책과 원고, 일기가 몰수되었고, 이를 계기로 소설 창작도 중단되었다.<sup>21)</sup> 뿐만 아니라 이후 출입국 관리소에서 해묵은 불법 신분 문제를 끄집어내어 그에게 3개월의 징역형을 내렸고, 결국 그는 미국의 감옥살이도 맛보게 되었다.

미국에서의 그의 삶은 이렇듯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는 평생 동안 문화사업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놓지 않았다. 그는 생활이 조금 나아지면서부터 신문이나 간행물에 글을 기고하기 시작하여 문화를 알리고 문학을 창작하는 것에 힘을 쏟았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내렸다.

“저는 살아가면서 노동자이기도 했고, 종대도 메었으며, 대학 강단에도 올랐는데, 마치 고정 직업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사실 제겐 평생직업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문화사업입니다.”<sup>22)</sup>

확실히 황원지의 삶에서 문화사업에 대한 추구와 헌신은 변하지 않았으며, 그는 평생 뜨거운 마음으로 묵묵히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모두 자신의 이상에 바쳤다. 일찍이 50년 대 후반에 그는 미국의 중문 신문인 《화교일보(華僑日報)》에 글을 기고하기 시작했으며,

20) 1950~1954년 미국을 휩쓴 일련의 반공산주의 선풍

21) 熊國華, 《美國夢——美籍華人黃運基傳奇》, 花城出版社, 2002.

22) “我這一生當過工人，拿過 槍桿子，上過大學講壇，似乎沒有一個固定職業。其實我有一個終生職業，就是文化事業”。徐乃翔, 〈一個真誠的人——記美國華文作家黃運基〉, 《華文文學》, 1998年01期。

후에는 《동서보(東西報)》의 칼럼니스트가 되었다. 또한 오래지 않아 그는 《동서보》에 편집장으로 초빙되었으며, 나중에는 《세계일보(世界日報)》로 옮겨 편집장을 맡게 되었고, 《화성보(華聲報)》의 편집장 겸 사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남의 제약을 받으며 신문을 발행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고, 문화사업에서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자 했다.

1972년, 황원지는 《시대보(時代報)》라는 주간지를 창간한다. 《시대보》 창간 초기에는 황원지가 사장 겸 총 편집자였기 때문에 혼자서 활자 인쇄부터 발행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을 도맡아야만 했다. 그는 일주일에 한 부씩 24판을 출판했는데, 일반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일의 양과 에너지 소모가 커졌다. 하지만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문화사업은 기본적으로 이익을 얻기가 매우 어려웠는데, 그는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혼자서 주간지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자신과 부인, 그리고 친구가 함께 공동 운영하는 중국 음식점에서 몇 시간씩 일을 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버텨냈고, 《시대보》는 날이 갈수록 잘되어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이목을 끄는 중문 신문이 되었다. 이러한 황원지의 열정과 헌신 정신은 그 주위의 화교들을 감동시켰고, 몇 명의 봉사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고정된 직원을 고용할 수 있을 만큼 그 규모가 커졌다. 그리고 1983년 《시대보》가 주간지에서 일간지로 바뀔 때 신문사는 이미 독자적인 인쇄실, 기계실, 사무실 등 고정자산을 가지고 있을 만큼 성장해 있었다.

당시에 《시대보》는 중국 대륙 소식을 전하는 미국 유일의 중화권 신문이었다. 덩샤오平의 방미 기간 동안 황원지는 《시대보》의 기자로서 이를 추적 취재하였고, 미국 대통령 레이건의 방중 기간에는 기자단의 일원으로 이를 동행 취재하였다. 황원지는 1974년 중국 외교부의 초청으로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베이징에서 열린 국경절 25주년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으며, 1979년 1월 1일, 모든 미국 중문 신문에 미·중 양국이 정식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한 것을 독점적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시대보》의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확대되었고, 황원지는 《시대보》에 장편소설 연재 등 문학작품 발표 외에 대량의 짧은 번역 문과 시사평론 등도 발표하였다.

하지만 중미 관계가 정상화된 후 미국에서 중국 소식을 보도하는 중문 신문은 나날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 《시대보》의 발행 부수가 감소하며 황원지는 자신의 집을 모두 저당 잡히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된 황원지는 어쩔 수 없이 《시대보》의 폐간을 선언하였지만 《시대보》가 폐간된 후에도 그의 열정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곧 《푸젠교보(福建僑報)》의 책임자를 맡게 된 것과 동시에 홍콩 《경보(鏡報)》의 샌프란시스코 지부 이사를 맡았으며, 그가 설립한 ‘시대문화사업유한공사(時代文化事業有限公司)’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 ‘시대문화사업유한공사’는 줄곧 미국에서 중국 《인민일보(人民日報)》(해외판)의 유일한 인쇄 및 유통 대행사의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그는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에서 중국 문학을 지원하기 위해 격월로 발행되는 중국 문학 및 예술 잡지 《미화문화인보(美華文化人報)》를 창간하고 신문을 중심으로 한 중국 작가 그룹을 모았다. 이후 1998년 6월 《미화문화인보》는 잡지명을 《미화문학(美華文學)》으로 변경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화문학》은 긴 시간 동안 ‘풀뿌리작가군’의 주요 활동 기지로써 ‘풀뿌리문학’의 결속력을 다지는 데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미화문학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황원지는 미국에서 언론인의 삶을 살면서 꾸준히 작품 활동도 했다. 그는 1950년대부터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작품으로는 시리즈 장편소설 3부작 《이향삼부곡》의 《격류》, 《광란》, 《격랑(巨浪)》과 중단편 소설 《샌프란시스코 격정의 세월(舊金山激情歲月)》, 산문집 《차이나타운(唐人街)》, 《황원지선집(黃運基選集)》 등이 있다.

199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장인 윌리 브라운은 황원지가 신문출판번역창작 및 장기적으로 미·중의 우호문화 교류에 힘쓴 점에 대한 탁월한 공로를 고려해 샌프란시스코 시의회를 대신하여 1998년 2월 1일을 샌프란시스코의 황원지와 미화문화인의 날로 선포했다.<sup>23)</sup> 이는 그의 삶의 노력이 미국에서도 인정받았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세월이 흘러 2012년 12월 21일, 황원지는 향년 81세의 나이로 작고하였다. 그가 미국으로 처음 이주해온 1948년부터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그는 끊임없이 노력하였고, 중문 매체의 개척부터 ‘풀뿌리문학’의 기초를 세운 것까지 훗날 미화문학을 위한 다리를 놓았다고 할 수 있다.

## 제2절 《奔流》 창작 동기 및 창작 관념

《격류》는 황원지의 장편소설 3부작 《이향삼부곡》 중 첫 번째 작품으로, 그가 서술한 미국 화인 생활사의 서막에 해당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황원지는 3부작의 주제를 각각 ‘기쁨’, ‘슬픔’ 그리고 ‘자신감’으로 요약하여 해외 화인들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부터 개혁개방 이후까지의 심경을 반영하고 있다. 먼저, 제1부 《격류》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에 대한 미국 이주 화인들의 기쁨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제2부 《광란》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부터 문화 대혁명이 발생하기까지 일부 극좌의 극단적인 관행이 화인사회를 ‘슬프게’ 한 것을 썼다. 마지막으로 3부 《격랑》의 광활한 배경은 개혁개방의 조류이며,

23) 陳瑞琳, 〈美華文學的一座豐碑〉, “瑞琳讀書”, 2013.

화인들은 조국 발전에 대한 ‘자신감’이 충만한 것을 표현한다. 중국 본토의 모든 정치적 운동과 역사의 전환은 해외에 살고 있는 화인들의 신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삶의 슬픔과 기쁨 등 각종 일들과, 황당한 역사의 혼란, 인간적인 선악 표현, 간절한 적자지심, 개혁개방의 험난한 길과 역사의 거대한 변화는 장편소설 《광란》과 《격랑》에서 제대로 펼쳐진다.<sup>24)</sup>

황원지는 일찍이 1954년에 《격류》를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국에서 매카시즘이 횡행하던 그 시대는 민주와 자유가 상당히 제한되었고, 그 와중에 미·중 양국의 우호 증진을 위해 묵묵히 봉사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 ‘반미’라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로 간주되었다. 그러한 이유로 황원지의 인권은 유린되었으며, 《격류》 원고가 몰수당해야만 했다. 첫 번째 《격류》는 그렇게 무산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1972년 2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미·중 관계의 문을 다시 열자 황원지는 《시대보》를 창간하였고, 《격류》를 다시 쓰고자 하였지만 편집 일과 사회적 활동이 많아 뜻을 이루지 못한 채 10년의 세월을 보내었다고 한다. 1983년 5월 4일, 《시대보》가 격일지에서 일간지로 바뀌면서 황원지는 결심을 굳혔고, 틈틈이 글을 써 《시대보》에 연재하여 10개월 만에 다시 《격류》를 완성하였다. 황원지는 글의 맷음말에서 밝혔듯이 자신이 문예 종사자도 아니고 문학적 수양도 없기에 자신의 습작이나 다름없는 《격류》의 이야기의 구성이나 인물의 묘사, 글의 활용 등 문학적 기법이 조잡하다고 스스로를 낮추어 평가하였다. 황원지는 글쓰기의 기본조차 배운 적이 없고,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채 생업에 뛰어들어야 했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것이 자신의 능력에 과분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작품을 쓰게 된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언급했다. 하나는 자신의 관심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속에 할 말이 있어서이다.<sup>25)</sup> 그가 이 작품을 통해 하고자 했던 마음속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 이미 작고하신 후에 연구를 시작하게 된 터라 그가 남긴 문헌과 인터뷰 내용 등을 참고하여 미루어 짐작하는 것 외에는 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기존의 자료를 검토하여 창작 동기를 추측해보았다.

《격류》는 ‘풀뿌리문학’ 작품 중에서도 미국에 이주하여 살고 있는 하층 화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천한평(陳涵平), 우이치(吳奕錡)의 〈미화문학에서의 ‘풀뿌리작가군’(簡論美華文學中的“草根文群”))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24) 熊國華, 《美國夢——美籍華人黃運基傳奇》, 花城出版社, 2002, p.288.

25) 黃運基, 《奔流》, 沈陽出版社, 1996, p.286.

‘풀뿌리작가군’의 작가들은 대부분 미국 사회의 밑바닥 계층에 살기 때문에 그들의 작품 내용에는 불가피하게 하층사회의 깊은 흔적을 남기게 되었다. ‘풀뿌리작가군’의 선봉이자 리더로 칭송받는 황원지 선생의 작품이 이 부분에서 대표적이다.<sup>26)</sup>

황원지의 작품이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된 배경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이는 물론 독자들이 작품을 읽으면서 직접 발견하고 느낄 수 있겠지만 황원지가 직접 언급한 말을 통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그는 작품 《격류》의 마지막 맷는말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격류》는 하나의 허구적이면서도 사실적인 소설입니다. 그 많은 등장인물 들 속에는 나 자신의 모습뿐 아니라 나의 친구들의 삶의 경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설에 묘사된 많은 사건들은 모두 미국의 화교<sup>27)</sup>들이 익히 들어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sup>28)</sup>

위의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황원지의 《격류》는 소설이지만 허황되고 꾸며낸 것이 아니며, 당시 미국에서 살아가던 화인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으로, 사실에 기반한 서술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작품의 이러한 다큐멘터리 특성을 통해 황원지는 당시 미국에서 살아가는 화교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보여주고자 글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대륙의 저명한 평론가 제민(潔泯)과 주자이(朱寨)는 그의 소설 《격류》를 “샌프란시스코 미국 화인 역사 소설(舊金山美國華人史演義)”이자 “한 부의 미국 화교의 투쟁에 대한 생생한 역사(一部形象的美國華僑奮鬥史)”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평가에서 나타나듯 황원지는 미국에서 생활했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글을 썼으며, 자신의 작품을 통해 미국으로 이주하여 살아가는 화인의 역사를 정확하게 묘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작가 자신의 말에 의하면 창작을 시작한 것은 작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다. 황원지는 그저 마음속에 오랫동안 담아 두었던 말을 창작의 형식을 통해 표현하려고 한 것이다. 이 때문에 그의 작품에서는 그의 삶의 경험을 찾을 수 있으며, 그 속에서 독특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26) “草根文群”的作家大都生活在美國社會的底層，因而他們的作品內容不可避免地打上了底層社會的深厚印記，如被譽為“草根文群”的先鋒和主將的黃運基先生的創作就是這方面的典型。陳涵平，吳奕鈞，〈簡論美華文學中的“草根文群”〉，《廣東教育學院報》第26卷 第4期，廣東：廣東教育學院，2006.05。

27) 원문의 ‘華僑’를 그대로 번역함.

28) “奔流是一部虛構的、也是寫實的小說。因為在眾多的人物中，有我自己的影子，也有我的朋友的生活經歷。小說所描寫的許多事件，都是美國華僑耳熟能詳的。” 黃運基，《奔流》，沈陽出版社，1996, p.285.

황원지는 어릴 적부터 바진(巴金)의 소설 《격류삼부곡(激流三部曲)》의 영향을 받아, 그의 장편소설의 이름을 《이향삼부곡》으로 정하였다고 한다.<sup>29)</sup> 실제로 《격류》에는 작품 속 인물 중 위넨주(餘念祖)가 바진의 소설 《멸망(滅亡)》과 《신생(新生)》을 감명 깊게 읽는 장면이 나오는데, 위넨주에는 황원지 자신의 어린 시절이 투영되어 있기에 그 또한 바진의 작품들을 통해 인생의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으며 그의 삶과 작품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풀뿌리작가군’의 선봉으로서 황원지가 《미국화교문예총서(美國華僑文藝叢書)》에 쓴 서문은 미국 화인의 ‘풀뿌리문학’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참고 문헌이다. 이 서문에서 황원지는 당대 ‘풀뿌리문학’의 3대 문학사적 명제를 다루고 있다.

첫째, ‘풀뿌리문학’의 문학사적 의식을 확립했다. 당대 ‘풀뿌리문학’ 서적은 ‘앤젤 아일랜드’ 글쓰기를 근원으로 하는 미국 화인 ‘풀뿌리문학’ 전통의 지속과 발전이다.

둘째, 미국 화인 문학의 이중 문화 의미를 설명하였다. 미국 화인 문학은 미주 토지에서 생겨난 것이지만, 중화 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미국 화인 작가는 미국 문화의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조상의 뿌리를 찾는 것을 잊지 않는다.

셋째, ‘풀뿌리문학’의 사명을 화교 중국계 미국사의 중요한 문학 이념으로 내세우는 것이다. 이 서문에서 황원지는 ‘풀뿌리문학’의 역사관과 주체의식을 명확히 설명하였다. “미국은 풍요로운 땅으로, 이 땅을 개척하고 물을 댄 사람 중엔 우리 수천수만 화인 선조들의 피와 땀이 있다. 대륙을 횡단하는 중앙 태평양 철도의 건축 공사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의 새크라멘토 삼각주 지역에서 40여만 에이커의 높지를 옥토로 바꾸는 공정에서 화교 선배들은 토지를 비옥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감동적인 일들은, 미국의 역사 교과서에서는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고, 미국의 주류 문화 예술계에서는 제대로 표현될 수 없다.”<sup>30)</sup>

황원지는 거의 평생을 미국에서 살았지만 떠나온 조국 중국을 사랑했다. 그는 매년 중국의 각종 사업에 대한 원조와 미국화인협회의 여러 활동에 대한 지원은 물론이고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후원으로 많은 돈을 기부하였다. 그는 이것이 중국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실제 행동이라고 생각했다.<sup>31)</sup> 하지만 또한 동시에 미국과 중국의 우호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는 평생 중국의 뿌리는 잊지 않고 미국과 중국 우호관계에 기여하고

29) 由於從小受巴金小說《激流三部曲》的影響，黃運基把他自己的長篇小說定名為《異鄉三部曲》，第一部《奔流》(22萬字)於1983年在舊金山《時代報》上連載；1985年在深圳《特區文學》選載；1996年4月由沈陽出版社出版，1998年1月再版，受到如潮好評。應當說，《奔流》在真實反映早期美國華僑移民生活方面具有獨特價值，是美國華僑生活的歷史畫卷，堪稱近十年來世界華文文學創作中不可多得的長篇力作。熊國華，《美國夢——美籍華人黃運基傳奇》，花城出版社，2002，p.288。

30) 劉小新，〈草根意識與歷史敘事——以舊金山華人作家群為中心〉，《江蘇大學學報》，第04期，2006。  
31) 徐乃翔，〈一個真誠的人——記美國華文作家黃運基〉，《華文文學》，第01期，1998。

자 끊임없이 노력하여 살았다. 황원지는 자신의 삶을 통해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당시 중국 대륙의 소식을 전하는 미국 유일의 화문 신문이었던 《시대보》를 창간한 것도 그 중 하나다. 그는 덩샤오핑이 미국을 방문하는 동안 이를 직접 추적 취재하여 《시대보》에 실었고, 미국 대통령 레이건이 중국을 방문하는 기간에는 기자단의 일원으로 이를 동행 취재하였다.

필자는 황원지가 미국에서의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창작활동을 하며 이를 통해 중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려고 했다고 생각한다. 결국 그가 《격류》를 창작하게 된 것은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미국에 흡수되지 않기 위해, 또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으며, 자신이 그랬듯이 앞으로 미국에서 살아갈 많은 화인들도 그러길 간절히 바랐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그의 염원을 담아 《격류》에는 화인의 미국으로의 이주과정부터 시작하여 미국에 정착하는 과정을 사실적으로 재현하였으며, 그 모든 과정에서 화인들의 심리와 행동 등을 상세히 묘사하였다. 그렇기에 《격류》를 읽는 그 어떤 이라도 작품을 통해 그의 창작활동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제3장 《奔流》에 나타난 이주현실의 재현

### 제1절 화인의 이주와 정착

화인들의 미국으로의 이주는 184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초기 미국으로 건너온 대부분의 화인 이주자들은 금광이나 미국서부개발을 위한 노동자였으며,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교육 및 문화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당시 미국의 임금 수준은 중국에서의 10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기에 가난한 이들은 아메리칸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의 이주를 결심하였고, 먼 바다를 건너 미국이라는 새로운 곳에서 정착하여 살아가기 시작했다.<sup>32)</sup>

필자는 1920년대부터 미국에 이주하여 살아가는 작중 인물 위롱주(餘榮祖)와 같은 기존 화인 또는 1948년 무렵에 새로 이주해온 위넨주(餘念祖)와 같은 신규 화인 대부분을 하층 화인으로 간주하여 분석하였다. 물론 실제로는 1943년 이후 학력이 높고, 문화적 소양이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화인이 일부 이주하기 시작했다.<sup>33)</sup> 그리고 작품에서도 리하오란(黎浩然) 등 교육 수준이 높은 교사 출신의 청년이 등장하는가 하면, 쉬펑(徐風) 등 경제적으로 가난하다고 할 수 없는 유학생도 등장한다. 이에 따라 필자는 하층 화인의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간주했다. 하층 화인은 대체로 특별한 전문성이나 경제력 없이 미국에 이주하였으며, 설령 일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주 환경 때문에 미국 사회 하층부의 노동을 위주로 생계를 이어나간다. 다시 말해서 하층 화인은 미국인이 기피하거나 원활한 영어가 필요하지 않은 비교적 단순한 노동에 종사하며 특히 미국 주류 사회보다는 차이나타운을 기반으로 하여 생계를 유지해 나간다. 이러한 필자의 접근을 바탕으로 본다면, 작품 속 대부분의 화인은 하층 화인의 범주에 속하며, 본고에서는 그 범주에 속한 하층 화인을 대상으로 하여 작품에 나타난 하층 화인의 삶을 분석하였다.

《격류》에는 화인의 이주와 정착의 과정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작품 속 시간적 배경은 1948년부터 1949년이지만, 작품 곳곳에 각종 인물의 회상과 대화를 통해 중국에서의 경험과 1948년 이전 초기 미국으로의 이주현실도 드러난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황원지가 오랜 기간 미국에서 살았던 작가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작품 속 생생

32) 이민자, <중국인 이민자의 미국사회로 통합과 차이나타운(Chinatown)의 역할>, 《중소연구》 39권4호, 2016.

33) 이민자, <중국인 이민자의 미국사회로 통합과 차이나타운(Chinatown)의 역할>, 《중소연구》 39권4호, 2016.

하게 묘사되어 있는 이주와 정착의 모습은 모두 하층화인이 이주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현실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이를 통해 하층 화인의 삶을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도 이해할 수 있다.

황원지는 위넨주가 미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서술하는 것과 동시에 초기 미국으로 이주한 화인들이 삶의 여정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이주와 정착의 경험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서술하였다.

첫째, 미국으로 이주하기 전 중국에서의 경험이다. 《격류》의 도입부는 미국에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는 작중 인물 위롱주가 아들 위넨주와 딸 리리(麗麗)를 보기 위해 중국으로 돌아온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작가는 위롱주와 위넨주가 미국으로 가는 상황과 그들의 회상을 통해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세부적으로 보여준다.

먼저 위롱주의 회상을 통해 고향을 떠나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게 된 세부적인 상황을 서술한다. 위롱주는 17세이던 1920년, 전쟁으로 나라가 어수선하여 살길을 찾기 위해 바다를 건너 샌프란시스코에 가게 된다. 그리고 12년이 지난 후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 결혼을 하지만, 2년이 채 안 되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사랑하는 처자식을 두고서 다시금 홀로 미국으로 돌아간다. 13년의 세월이 또 흘렀을 때, 아내는 이미 병으로 세상을 뜨고, 태평양전쟁으로 위롱주가 입대하면서 중국에 있는 아들딸과의 연락마저 끊긴다. 그리고 1947년 겨울에서야 위롱주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많은 빚을 지고 있던 위롱주는 고향에서 가족들과 겨우 3개월의 기간을 보내고, 경제적인 이유와 나날이 긴장되는 내전 상황으로 인해 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는 두 아이 모두 데려가고 싶지만 딸이 태어나기 전 미국 이민국에 실수로 아들 둘이 있는 것으로 신고를 해버렸기에 어쩔 수 없이 딸 리리는 고향에 두고 아들 위넨주만을 데려간다. 이처럼 작품에서는 위롱주의 생애를 통해 처자식을 두고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화인의 쓰라린 피와 눈물의 역사를 보여준다.

그리고 작가는 위넨주의 회상을 통해 중국에서의 참담한 경험을 묘사한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사랑과 보살핌 없이 친척들에게 얹혀 살아가야 했던 위넨주와 그의 동생 리리는 가난하고 고달픈 유년시절을 보낸다. 위넨주의 기억을 통해 그 시절 여느 가난한 아이들처럼 돼지분변을 주웠던 일,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녔던 것과 몰래 수업을 들으려다 지주의 못돼먹은 아들에게 발각되어 쫓겨난 일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보여준다. 그리고 그 중 가장 끔찍했던 사건으로 친구 췌이췌이(翠翠)가 지주의 고구마를 훔쳐 먹다 생매장을 당했던 일화를 사실적으로 재현한다.

위넨주에게 익숙한 산등성이의 대나무숲가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울음소리, 울부짖는

소리가 비바람처럼 처량하다. 위넨주의 친구, 이제 막 10살이 된 소몰이 소녀 췔이췌이가 두 손이 묶인 채 이 곳으로 내몰려왔다. 췔이췌이의 어머니는 하늘이 떠나갈 듯 목놓아 통곡하고 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다.

배가 너무 고팠던 췔이췌이는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밭에서 지주의 고구마를 훔치다가 잡혔다.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이 가장 천했던 그 시절, 그들의 운명은 자신들의 손에 달려 있지 않았다.

ushman 췔이췌이는 지주의 하수인들에 의해 구덩이로 밀려 산 채로 묻혔다.

“엄마……” 췔이췌이가 울며 소리 질렀다.

“ushman 췔이췌이” 어머니도 울부짖었다.

ushman 췔이췌이의 어머니는 구덩이로 뛰어들어 딸을 껴안고 필사적으로 자신의 혈육을 보호하려고 애썼다.<sup>34)</sup>

위의 인용문은 당시 중국 서민들의 참혹한 생존 환경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작품에는 작중 인물의 회상을 통해 중국에서의 비참하고 끔찍한 경험이 사실적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묘사는 황원지 자신의 체험에서 나온 것으로, 췔이췌이 이야기에는 그녀와 똑같이 생매장을 당했던 황원지의 어린 시절 친구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sup>35)</sup> 황원지의 비참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은 작품 곳곳에 반영되어 나타나며, 실제 경험에서 비롯된 만큼 그 비참했던 상황이 작품에서 고스란히 재현되는 듯하다.

위넨주는 가난으로 얼룩진 나날을 뒤로하고, 여기저기 황금이 널려있다고 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환상을 품는다. 그리고 지금껏 자신을 친자식과 다름없이 키워준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그리고 가장 오랜 세월 함께 했던 혈육인 친동생 리리를 두고서 남이나 다름없는 아버지를 망설임 없이 따라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그만큼 그가 겪었던 가난의 경험이 비참했기 때문이다. 그가 겪었던 또 한 가지의 비참한 경험으로 아래의 일화를 들 수 있다.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 이제 겨우 일곱 살밖에 안 되었는데, 이렇게 모질게 팔아야겠어요?” 큰어머니가 흐느끼며 말했다.

“다른 방법이 없잖소.” 큰아버지의 절망적인 목소리였다.

34) 就在小念祖所熟悉的山坡上的竹林邊，正圍著一群人。哭聲、呼嚎聲，像陣陣淒風慘雨。小念祖的小朋友翠翠，一個剛滿十歲的放牛女孩，被人捆綁著兩手，推到這竹林邊。翠翠的母親正哭得死去活來，呼天不應，叫地不靈。只因為翠翠實在太餓了，在田裏偷了地主的一條番薯充饑，她被抓住了。那個年月，窮苦人的生命最賤，他們的命運都不掌握在自己的手心裏。翠翠被地主的爪牙推進坑裏活埋了。“媽……”翠翠在哀叫。“翠翠”母親也在哀叫。翠翠的媽跟著撲進坑裏，摟著女兒，拼了老命要護著自己的親生骨肉。黃運基,《奔流》,沈陽出版社,1996, pp.6-7.

35) 徐迺翔,〈魂系中華、心連祖國的情結——評黃運基的《奔流》〉,社會科學輯刊,1996.

“당신이 그러도록 내버려 둘 수 없어요! 굶어야 하면 다 같이 굶어 죽어야지.” 큰어머니의 울부짖는 목소리에는 남편에 대한 비난이 섞여 있었다.

“지난 몇 년 동안 동생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도 오늘까지 살 수 없었을 거요.” 큰아버지지는 침통하게 이야기했다. “나는 동생의 자식들을 돌볼 책임이 있으니, 그 아이들이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소.”

“우리 외아들을 팔아서 저 남매를 살리겠단 말이에요?” 큰어머니가 슬프게 울며 말했다.

위넨주는 여기까지 듣고서 어떤 상황인지 알아차렸다. 그는 눈물을 꺼 참으며 동생의 침대 앞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그녀를 깨우고는 속삭였다. “얼른 일어나, 가자!”<sup>36)</sup>

위의 인용문을 통해 위넨주의 큰아버지가 자신의 외아들을 팔려고 결심을 할 정도의 심각한 가난의 상황을 알 수 있으며, 그러한 상황을 알고 비록 갈 데 없는 처지이지만 동생 리리와 집을 떠나려고 했던 위넨주의 아픈 경험이 드러난다. 이렇듯 당시 화인은 비록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과 가족들을 떠나기 힘들지만, 살길을 찾기 위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중국에서 눈물의 어려운 유년기를 보내야만 했던 위넨주는 금의환향의 꿈을 간직한 채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가는 배에 오른다. 실제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미국 샌프란시스코 금광의 발견으로 많은 화인 노동자들이 부푼 꿈을 안고 고향을 떠나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 고향에 남아있던 이들은 미국에서 겪어야 했던 고된 경험은 알지 못한 채 화려한 성공만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작품에서도 위넨주는 아버지가 귀향했을 때의 화려한 모습만을 보았기에 한껏 부푼 마음으로 미국에서의 생활을 기대한다. 아래의 인용문을 통해 이러한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과거의 고달팠던 나날들이 곧 끝나는구나. 그는 아버지를 따라 아름다운 나라로 간다. 그는 기억 속의 악몽이 곧 아름다운 꿈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다.<sup>37)</sup>

하지만 이러한 상상과 달리 화인의 미국으로의 이주 및 정착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

36) “我們只有這一個兒子，才七歲大，你就忍心把他賣了嗎？”伯母嗚咽著說。“沒有別的辦法了。”這是伯父絕望的聲音。“我不能讓你這樣做！！要餓就一塊兒餓死好了。”伯母的哀嚎聲混雜著對丈夫的譴責。“過去這麼多年，我們這個家要是沒有弟弟的接濟，我們也活不到今天。”伯父沈痛地說，“我有責任照顧他的兒女，我不能讓他們白白餓死！”“難道把我們唯一的兒子賣了，就能養活他們兄妹倆了嗎？”伯母哀泣著說。小念祖聽到這裏，明白是怎麼回事了。他強忍著眼淚，悄悄地走到妹妹的床前，把她喚醒，輕聲對她說：“快起來，我們走！”黃運基，《奔流》，沈陽出版社，1996, p.10.

37) 過去的苦日子，眼前就要結束了。他要跟父親到一個美麗的國家去了。記憶中的噩夢將會變成美夢，他默默地想。黃運基，《奔流》，沈陽出版社，1996, p.10.

다. 중국에서의 가난이라는 현실의 고통을 피해 ‘꿈’을 쫓아 온 미국에는 다른 종류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다. 약소국의 가난한 신분으로 미국에 건너온 화인은 미국에서도 허리를 곧게 펴기 어려웠다. 대부분의 화인은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했으며, 굴욕 당하고, 욕설을 듣거나 얻어맞는 등의 신세를 져야만 했다. 작품에는 아주 화인의 대화나 회상을 통해 그들이 받았던 차별과 고난이 언급되며, 작품 속 시간적 배경을 따라 각종 인물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차별과 배척을 묘사한다. 세부적인 일화는 이후의 장에서 상세하게 소개하도록 하겠다.

둘째, 이민자들이 미국 땅을 밟기 위해 거쳐야 했던 관문인 ‘앤젤 아일랜드(Angel Island, 天使島)’에 대한 경험이다. 위롱주가 아들을 데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배 위에서 이제 미국에 처음으로 건너가는 리하오란(黎浩然)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온다. 미국에서의 생활 경험이 전혀 없는 리하오란은 미국에 도착한 중국인들을 미국 이민국에 구금하여 심문한다는 게 사실인지 궁금해 한다. 이러한 리하오란의 질문에 이미 미국으로의 입국 경험이 있는 위롱주는 그가 알고 있는 것이 사실임을 알려주며, 이전에는 이보다 더 심한 차별을 겪어야 했던 ‘앤젤 아일랜드’라는 곳에 대해 언급한다.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지, 내가 미국에 왔을 때는 '앤젤 아일랜드'라는 작은 섬에 갇혔다네. 이름은 좋게 들리지만 그곳은 감옥이었지."<sup>38)</sup>

위롱주가 말하는 ‘앤젤 아일랜드’는 실제로 존재하는 섬이며, 당시 미국에 도착한 이민자들을 감금했던 건물을 현재까지도 보존하여 역사적 자료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곳이다. ‘앤젤 아일랜드’는 미국 서해안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만에 위치한 섬이다. 이곳에는 1910년부터 1940년까지 태평양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아시아 이주자를 구금하고 검열하기 위해 미국 이민국이 선정한 이민자 수용소가 있었으며, 그 중 중국인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앤젤 아일랜드’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눈물의 섬’이었다. 초기 중국인 이주자들은 이곳의 극도로 나쁜 환경에서 살아야 했다. 식생활면에서는 가장 싼 재료를 사용하였고 음식 종류도 적었는데 가격이 비쌌기에 수용소가 운영되어지는 30년 동안 음식에 대한 불만족으로 최소 20건의 폭동이 일어났다.

‘앤젤 아일랜드’에는 웅장한 건물이나 넓고 깨끗한 방이 없었다. 초기 중국인 이주자들은 2층짜리 작은 건물 한 동에만 머물렀다. 건물은 붐비고 지저분했으며, 열차의 침대칸처럼 침대가 빼곡했다. 방문과 창문에는 철책이 쳐져 있었고, 유일하게 몸을 움직일 수

38) “現在要比以前好得多了。我來美國的時候，被關在一個叫做天使島的小島上，名稱倒好聽，可真是一座監獄呢。”黃運基，《奔流》，沈陽出版社，1996，pp.19-20。

있는 운동장에도 철조망이 둘러져 있었다. 이 섬은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물살이 거세어 천연의 방벽을 이루고 있었기에, ‘앤젤 아일랜드’에서 구금생활을 해 본 많은 중국인 이주자들은 이곳을 ‘감옥’ 또는 ‘우리’라고 표현했다.

미국에 순조롭게 입국하기 위해서 중국 이주자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윗옷을 벗고 백인 의사에게 건강 검진을 받아야만 했다. 건강 검진을 통과한 중국 이주자들은 다시 구금되어 심사관이 입국의 합법성을 검토 할 때까지 기다렸다. 심사 때마다 ‘앤젤 아일랜드’ 이민국의 심사위원과 기록요원, 통역사가 공동으로 중국인 이민자를 상대로 문의하면 답변이 기재되었으며 미국에 있는 친척의 답변과 대조해 일치여부로 신청자 입국의 적법성을 판단했다. 이런 심사는 일반적으로 몇 주씩 계속되었으며 소수의 신청자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여러 해 동안 섬에 구금돼 있는 경우도 있었다.<sup>39)</sup>

이렇듯 실존하는 공간과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작품에서는 위롱주의 말을 통해 그곳이 ‘감옥’이었음을 이야기한다. 이는 초기 화인들이 미국 땅을 밟기 위해 거쳐야만 했던 곳에 대해 정의를 내린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단순히 입국 심사를 위해 머물렀던 곳 이상의 의미를 지닌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공간에서 지낸 것이 마치 ‘감옥’에서 죄인으로서 지낸 것과 같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앤젤 아일랜드’에 구금되어 오욕적인 삶을 살아야만 했던 화인들은 구금되어 있던 목조 건물 벽에 시를 새기며 그들의 마음속 고뇌, 분노, 방황, 절망, 자기연민, 향수, 그리움과 희망 등을 털어놓았다.<sup>40)</sup> 작품에는 이민 과정에서 이곳에서의 일을 직접 겪은 세대인 위진탕(餘錦堂)과 위롱주가 그 때의 일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온다.

위진탕이 말했다. “자네와 내가, 그리고 수 천 명의 동포들이 앤젤 아일랜드 이민자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의 기분을, 자네는 다 잊었나?”

“아뇨, 잊지 않았습니다.” 위롱주가 복받쳐 오른 듯 말했다.

“저는 영원히, 절대로 잊지 못할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나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 나무 벽에 새겨진 수많은 시들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형님이 쓴 시 두 수를 포함해서요.”

“그 시구들은 우리 동포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불평등에 대한 울분일 뿐인데, 나쁠 것은 무엇이고, 옳지 못할 것은 또 무엇이겠나.”<sup>41)</sup>

39) 宋陽, 〈離散空間的衍變與再現——解讀美華歷史與文學中的天使島〉, 《聊城大學學報 (社會科學版)》, 第02期, 2019.

40) 黃運基, 〈美華文學發展初探〉, 《走向21世紀的世界華文文學》, 1999.

위의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초기 이주자인 위진탕과 위롱주가 말하는 ‘감옥’에 서의 삶은 당시 화인들에게 있어 잊을 수 없는 오욕적인 삶이었다. 아메리칸드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고향과 가족을 등지고 도착한 미국이라는 곳은 당시 하층 화인들에게 있어 너무나도 혹독하고 처참한 곳이었으리라. 이들의 대화를 통해 미국 이주의 역사 속 화인들이 ‘엔젤 아일랜드’라는 곳에서 겪어야 했던 불평등 뿐 아니라 그 속에서 화인들이 느껴야 했던 억울함과 울분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인용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화인들은 이러한 마음 속 울분을 ‘엔젤 아일랜드’ 이민자 수용소의 목조 건물 벽에 빼곡하게 새겼고, 시구의 형태로 되어 있는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들은 훗날 발견되었다. 1940년 8월 12일, ‘엔젤 아일랜드’ 이민국의 행정 본관에 화재가 발생해 이민국도 폐쇄된 이후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화재에서 살아남은 수용소 건물은 한때 미군에 의해 군사 기지로 선정되어 사용되었고, 이후 25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남게 되었다. 1970년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던 건물들은 허물어질 운명에 처했고, 철거를 앞두고 이민국의 직원인 알렉산더 바이스(Alexander Weiss)가 건물을 둘러보다 우연히 중국인 이민자들이 살던 건물 벽면에 빼빼이 새겨진 중국어 시구를 발견했다. 이를 계기로 ‘엔젤 아일랜드 시(天使島詩歌)’가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화인 역사학자 힘 마크 라이(Him Mark Lai, 麥禮謙), 지니 림(Genny Lim, 林小琴), 주디 영(Judy Yung, 楊碧芳) 등이 시를 모아 《섬: 엔젤섬 중국 이민자의 시와 역사(Island: Poetry and History of Chinese Immigrants on Angel Island, 埃侖詩集)》를 편찬하여 1980년 출간했다. 이는 초기 화인들이 미국에 와서 차별받고 구금되었던 역사를 반영한 미학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sup>42)</sup>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관문이었던 이곳은 중요한 사회적, 물질적 유산이자 미국정부의 이민 및 반 중국 정책 등에 의한 결과이며, 초기의 중국인 이주자들을 구금하는 패권적 공간으로, 초기 중국인 이주자들의 독특한 쓰라린 경험을 담고 있다. 섬의 건물 하나하나에서 특정 시기 인종과 이민 정책 등에서 미국 정부가 중국인을 부당하게 대했던 점을 확인할 수 있다.<sup>43)</sup>

셋째, 미국이민국(USCIS)<sup>44)</sup>에 대한 경험이다. ‘엔젤 아일랜드’의 이민자 수용소가 폐

41) 餘錦棠說，“你和我，還有數以千計的同胞，當年被監禁在天使島移民拘留所裏那種味道，你都忘記了？”“不，我沒有忘記，”餘榮祖感慨地說，“我永遠也不會忘記的。到現在，過了這麼多年，我仍然清晰地記得許多首刻在木牆上的詩詞。包括你刻的兩首詩在內。”“那些詩詞正是發自同胞內心的不平之鳴，有什麼不好，有什麼不對呢？”黃運基，《奔流》，沈陽出版社，1996, pp.57.

42) 黃運基,〈美華文學發展初探〉,《走向21世紀的世界華文文學》,1999.

43) 宋陽,〈離散空間的衍變與再現——解讀美華歷史與文學中的天使島〉,《聊城大學學報(社會科學版)》,第02期,2019.

쇄된 이후, 작품에서는 이주자들을 ‘엔젤 아일랜드’에 구금하는 것 대신 샌프란시스코 시내에 마련된 13층 이민국 건물에 구금하고 심문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처음으로 미국에 도착한 위년주는 도착하자마자 입국 심사를 받기 위해 이민국 13층 건물에 갇히게 된다. 작품 속 묘사된 그곳의 열악한 환경은 ‘엔젤 아일랜드’의 이민자 수용소를 떠올리게 한다.

샌프란시스코 이민국은 13층짜리 건물로 차이나타운 북쪽 가장자리에 무자비한 거인처럼 서서 사람들을 지켜보는 것 같다. 이 건물에는 밤낮으로 끊임없는 사람들의 흐름과 이민 절차를 거치는 모든 민족 집단의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그들이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얼굴에 드러나는 조급하고 짜증스러우며 걱정 가득한 표정은 마치 그들의 운명이 여기서 결정되는 듯 보인다.

위년주가 13층 건물에 갇힌 지 벌써 한 주가 지났다. 그의 유일한 활동 범위는 그가 지내고 있는 그 좁고 작은 방이며, 방에는 4개의 이층침대가 놓여있어 아래위로 8명이 지낸다. 다행히 그는 함께 배를 타고 왔던 리하오란과 같은 방을 쓰고 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훨씬 더 외롭고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활동할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은 식당이다. 매일 세끼, 모두가 식당에서 한 시간 이상 머물렀으며, 음식이 형편없어도 먹어야 했는데, 아니면 굶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매번 밥을 먹을 때마다 사람들의 불평이 터져 나왔다.

위년주가 품고 있던 환상과 희망은 요 며칠 사이에 점점 사라져갔다.<sup>45)</sup>

오랜 기간 그곳에 구금된 많은 화인들은 장소만 다를 뿐 역사적 기록과 똑같이 열악한 쳐우를 견디며 언제 나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위년주는 자신이 상상하던 민주 자유국가 미국에서 자유를 빼앗기게 되자 그동안 품고 있었던 환상과 희망이 사라져가는 것을 느낀다. 당시 미국에 도착한 화인들은 언제 나갈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형편없는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며 오랜 기다림 끝에 겨우 심사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작품에 표현된 것과 같이 그 심문의 과정도 결코 쉽지 않았음을

44)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USCIS)

45) 舊金山移民局，是一座十三層的大廈，它像一個冷酷無情的巨人似的矗立在華埠的邊緣，窺視著人們的舉動。在這座樓宇裏，整天到晚都是川流不息的人群，排長龍辦理移民手續的各民族人民，他們在輪候時流露出來的那種焦急、煩躁和憂慮的臉色，彷彿命運就決定在這裏。小念祖被瞓在十三樓已經一個星期了。他每天唯一的活動範圍，就是他住的那個狹小的房間，房裏有四張碌架床，上下住著八個人。幸好和他同船來美的黎浩然大哥也和他同住一個房間，要不然就更加寂寞難受了。另外一個可以活動的地方是飯堂。每天三餐，大家就在飯堂呆一個多小時，飯菜很糟，吃不下也得要吃，否則，隻有餓肚子了。因此，每次吃飯的時候，人們都忍不住要發牢騷。小念祖原來那一股幻想和希望，這些天來漸漸地消失了。黃運基，《奔流》，沈陽出版社，1996，p.45。

알 수 있다.

“그에게 전달하시오. 내가 묻는 말에 정직하게 대답해야 하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거짓말은 범죄니까요.” 심문관이 장자오동(張兆東)에게 말했다.

장자오동은 그의 말을 위넨주에게 통역해주었다. 위넨주는 고개를 끄덕였고, 가슴이 섬뜩해졌다.

“그럼, 이제 시작합시다.” 심문관이 말했고, 차가운 눈빛으로 위넨주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물었다. “이름이 뭐죠?”

“제 이름은……” 위넨주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제 이름은……위넨주입니다.” 아뿔싸! 첫 마디부터 틀리다니! “제 이름은 저우위넨(周宇年)입니다.” 위넨주는 재빨리 고쳐 말했다.

“당신 성이 대체 뭐야. 위야 아니면 저우야?”

“제 성은 저우이고, 이름이 위넨이에요.” 위넨주는 조금 진정하고서 천천히 정확하게 이름을 말했다.

“왜 아까는 위넨저우(字年周)라고 한거죠?” 심문관이 눈을 부릅뜨고 날카롭게 질문했다.

장자오동이 다급하게 위넨주 대신 해명하며 둘러댔다. “아까는 이름을 먼저 말하고 나서 성을 말한 거고, 후에는 성을 먼저 말하고 이름을 말한 겁니다.”

위넨주는 손에 땀을 쥐었다. 다행히 “저우(周)”와 “주(祖)” 두 글자의 광동어 번역음이 비슷하고, “위넨(餘念)”과 “위넨(字年)”의 번역음도 비슷했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고비를 넘기지 못할 뻔했다. 그는 심문관의 매서운 눈초리를 감히 마주할 수 없었다.<sup>46)</sup>

위의 인용문과 같이 심문하는 과정은 작품에서 다섯 장에 걸쳐 사실적이며 상세하게 나타난다. 백인 심문관과 통역사를 통해 진행되는 입국심사는 위넨주의 이름을 묻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마치 취조하듯 숨 돌릴 틈도 없이 진행되는데, 살던 마을에 우물이 몇 개 있으며, 집에 방이 어떤 방향인지, 집에 계단은 몇 개가 있는지 등등의 질문이 이어지며, 위넨주가 대답을 조금이라도 머뭇거리거나 망설이면 호적을 속인 것이라며 의심

46) “你告訴他，我的問話，他要老老實實的答，不能講假話，講假話是犯罪的。”審問官對張兆東說。張兆東把他的話翻譯給小念祖，小念祖會意地點頭，心裏直打冷顫。“那麼，我們現在就開始。”審問官說，冷冰冰的眼光盯著小念祖，“你叫什麼名字？”“我叫……”小念祖不由自主地慌張起來：“叫……餘念祖。”糟糕！頭一句就答錯了！連忙改正道，“我叫周宇年。”“你到底姓什麼，姓餘還是姓周？”“我姓周，叫宇年。”小念祖稍為鎮定了一些，慢吞吞地把姓名讀准。“為什麼你剛才又說字年周？”審問官瞪大眼睛，尖聲質問。張兆東連忙解釋，為小念祖解圍：“他剛才是先說名字後說姓，後來答的是先姓後名。”小念祖捏了一把汗。幸好“周”和“祖”兩字的粵語譯音相近，“餘念”和“字年”的譯音也差不多，要不然准過不了關。他的眼睛不敢與審問官的凶惡目光接觸。黃運基，《奔流》，沈陽出版社，1996，pp.80。

을 하기까지 한다.

이렇듯 ‘앤젤 아일랜드’가 폐쇄된 이후에도 미국 이민국은 이주자들의 입국 심사를 위해 샌프란시스코 시내에 있는 이민국 13층 건물에 이주자들을 수용하여 심문하는 과정을 진행했다. 이러한 장면을 통해 이주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그의 실제 경험에서 나온 것으로, 앞서 그의 생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로 황원지도 처음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따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을 때 이민국 13층에 보름정도 구금된 끝에 심사를 받아야 했다고 한다. 또한 작품 속에 나오는 상세한 묘사와 같이 그도 마찬가지로 심문관에게서 이름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하여 동네에 몇 가구가 사는지, 몇 개의 우물이 있으며 집안에는 몇 개의 계단이 있는지 등등 취조에 가까운 심문을 받아야만 했다. 작품 속 묘사를 통해 화인들의 이주는 결코 쉽지 않았으며, 이들이 미국에 정착하기도 전에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당시 미국에 이주하여 살던 화인들이 모여 살게 된 차이나타운이다.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대규모 화인 정착지이다. 샌프란시스코는 화인이 상륙할 수 있는 관문이고 금광이 가까웠기 때문에 화인 이민자들이 집중되었다. 1848년 초 차이나타운이 시작되었고, 1880년 경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은 현재 중심을 형성한 12블록에 걸쳐 형성되었다. 차이나타운은 중국인의 관습, 의식, 풍습을 유지하는 배타적인 지역이었다.<sup>47)</sup> 황원지는 작품에서 이러한 차이나타운이 형성된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화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던 상황에 대해 사실적으로 다루고 있다.

미국에 정착하여 살았던 화인들은 미국 사회로부터의 차별을 피해 미국 사회와 거리를 두어 사는 것을 택하였다. 이러한 고립된 삶을 살아가며 차이나타운이 형성되었고, 대부분의 화인들은 이곳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작품에서 황원지는 미국에 정착한 화인들이 차이나타운에 모여 생활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작품 속 인물을 통해 이야기한다.

“우리는 당시 백인의 괴롭힘을 당하며 목숨이 보장되지 않았기에 어쩔 수 없이 한 구석에 처박혀 서로를 보호하며 마치 보이지 않는 담을 쌓듯 백인의 괴롭힘을 방지할 수 있었고,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벽을 차이나타운이라고 부른다고 들었어.”<sup>48)</sup>

47) 이민자, 〈중국인 이민자의 미국사회로 통합과 차이나타운(Chinatown)의 역할〉, 《중소연구》 39권4호, 2016.

48) “他說，當年我們受到白種人的欺負，生命朝不保夕，我們被迫擠在一個角落裏，戶型扶持，互相保護，像築了一座無形的牆，防止白種人的欺負，這才使我們有一個喘息的機會，這座牆就叫做唐

위의 인용문은 이제 막 차이나타운에 온 쉬펑(徐風)에게 오랫동안 미국에서 생활한 그의 사촌동생 류전(劉珍)이 차이나타운을 보여주며 차이나타운은 두꺼운 벽에 둘러 쌓여 있다고 말하는 장면이다. 여기서 말하는 두꺼운 벽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무형의 벽이다. 마치 자신들이 보이지 않는 벽에 둘러싸여 있다고 표현한 것이다. 위의 인용문을 통해 우리는 차이나타운에서의 삶이 당시 미국으로 이주한 화인들이 미국 사회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고자 만들어낸 곳이라는 사실과 함께 미국 사회로부터 멀어져야만 했던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 알 수 있다.

또한 위롱주의 입을 통해 당시 화인들이 차이나타운을 떠나서 살아가기 힘들었던 현실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네 할아버지 때에는 말이다.” 위롱주가 개탄스럽게 말했다. “차이나타운 거리를 벗어나기만 하면 백인들에게 쫓기며 구타를 당했고, 언제든 목숨이 위험했는데, 지금은 훨씬 나아진 거지…….”<sup>49)</sup>

이제 막 미국에 온 위넨주는 아버지 위롱주가 미국인들의 차별적이고 비인간적인 태도에도 맞서지 않는 것을 보고 분노하며, 자신이 그런 상황을 마주한다면 떳떳하고 당당하게 다시는 자신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대처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자 위롱주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고 열악했던 화인들의 처지와 차이나타운의 보호가 필요했던 화인들의 이주 현실에 대해 이야기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위롱주는 1920년대에 미국으로 온 화인으로, 자신의 아버지 세대에 겪어야 했던 미국의 인종 차별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당시 중국인들은 길거리에서 백인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총에 맞아 죽는 일이 흔했다.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은 화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으로, 사실은 그 당시 백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해 어쩔 수 없이 함께 모여 형성된 작은 지역이다.<sup>50)</sup> 황원지는 작품에서 작중 인물들의 회상과 대화를 통해 이러한 슬픈 역사적 현실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차이나타운을 결코 역사적인 슬픈 사연이 있는 부정적인 공간으로만 묘사하지 않았다. 작품에는 초기 이주 화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잘 나타나지만, 이러한 설명을 바탕으로 작품의 시대적 배경 속 차이나타운과 화인에 대한 묘사를 통해

人埠。”黃運基,《奔流》,沈陽出版社,1996, p.42.  
49) “你爺爺那個時候,”餘榮祖慨然地說,“離開華埠一條街,就被白人追打,隨時都有生命的危險,現在,好得多了……”黃運基,《奔流》,沈陽出版社,1996, p.97.  
50) 當時美國的種族歧視很嚴重,華人在大街上被白人毆打、射殺都是常有的事。舊金山的唐人街,是華僑居住最集中的地方,其實就是當年受白種人欺負、被迫擠在一起形成的狹小區域。熊國華,《美國夢——美籍華人黃運基傳奇》,花城出版社,2002年, p.290.

차이나타운에서 살아가는 화인의 삶이 어떠했는지도 보여준다.

## 제2절 차이나타운과 화인의 생활

초기 화인 이주자들은 주로 차이나타운에서 생활하며 중국식 생활방식, 중국어, 중국 관습을 유지했다. 이들에게 차이나타운은 중국식 사회, 문화, 여가활동의 중심지였고, 중국에 있는 가족과 마을을 연결하는 통로였다. 이민자들은 차이나타운을 근거지로 하여 미국에 체류할 수 있었는데, 샌프란시스코 중국인들이 중국식 생활방식을 유지했던 상징적 장소가 바로 차이나타운이었다.<sup>51)</sup> 작품에서는 샌프란시스코에 대한 묘사를 시작으로 당시 차이나타운의 모습을 사실적이고 정확하게 보여준다.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은 화인들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당시 백인들의 괴롭힘으로 한 곳에 모여 형성된 작은 지역이다. 그랜트 거리(Grant Avenue, 都板街)는 차이나타운의 중심 거리로, 거리 양옆에는 선물가게, 잡화점, 음식점, 신발가게, 장식품 가게, 약재점, 신문판매점 등이 있으며, 부시 거리(Bush Street, 勃斯伸街)에서부터 브로드웨이 거리(Broadway, 布律威街)까지 뻗어 있다.<sup>52)</sup>

작품 속 인물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중국 찻집과 서양음식이 맞지 않은 이들이 즐겨 찾게 되는 중국 음식점 뿐 아니라 중국책이 가득한 서점, 잡화점, 화인학교, 심지어 중국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도 나온다. 또한 동시에 작품에는 세부적인 묘사를 통해 당시 차이나타운의 모습과 그곳에서 생활하는 화인의 모습이 사실적으로 재현되고 있다.

첫 번째로 화인들의 음식문화와 관련된 묘사이다. 캘리포니아에서 중국인은 미국사회와 분리되어 차이나타운에서 중국식(음식, 옷, 생활기준, 관습 등)으로 생활했다.<sup>53)</sup> 중국인 이민자들에게 중국 음식점은 중요한 사업 중 하나였다. 샌프란시스코에 중국 음식점은 1849년 초부터 문을 열었다. 초기 중국 이민자들 대부분이 광둥인(廣東人)이었기 때-

51) 이민자, <중국인 이민자의 미국사회로 통합과 차이나타운(Chinatown)의 역할>, 《중소연구》 39권4호, 2016.

52) 舊金山的唐人埠——華僑最集中的地方，是當年受白種人欺負，被迫擠在一起形成的狹小地方。都板街是華埠的中心街道，街道兩旁盡是禮物店、雜貨店、餐館、鞋店、首飾店、藥材鋪、賣報攤……，從勃斯伸到布律威街。黃運基，《奔流》，沈陽出版社，1996，pp.29-30.

53) 이민자, <중국인 이민자의 미국사회로 통합과 차이나타운(Chinatown)의 역할>, 《중소연구》 39권4호, 2016.

문에 광동 요리를 주로 하는 음식점이었다. 초기 운송 기록을 보면, 말린 굴, 새우, 오징어, 버섯, 말린 두부, 죽순 등의 식재료를 위탁 판매했다. 차이나타운의 중국 음식점과 찻집은 홀로 이민 온 중국 남성들에게 저렴한 중국 음식과 최신 중국 소식을 전해주는 곳이었고, 사교활동을 하는 장소였다. 중국 이민자들은 중국 음식점에서 외로움과 멀리 떨어진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랬다.<sup>54)</sup> 작품에서는 차이나타운 내에 있는 중국 음식점과 중국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 위롱주는 저녁에 아들 위넨주와 함께 자신이 일하는 백인 의사의 집에서 저녁식사를 준비하며 저녁을 먹었지만 아직 미국으로 온지 얼마 되지 않은 아들 위넨주에게 서양요리가 입에 맞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을 마친 후 위넨주를 중국 음식점으로 데려간다.

위롱주는 아들 위넨주가 서양요리를 먹는 데 익숙하지 않기에 오늘 저녁을 배불리 먹지 않은 것을 알고는 그를 ‘삼워(Sam Wo, 三和)<sup>55)</sup>로 데려가 니우난미엔(牛腩面) 한 그릇을 먹었다.<sup>56)</sup>

작품에 등장하는 ‘삼워’는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유명한 중국 음식점이다. 현재까지도 이곳은 중국 전통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중국 음식점으로 차이나타운 거리에 있다. 물론 현재 남아있는 음식점과 동명의 다른 장소일 가능성은 있지만 샌프란시스코의 ‘삼워’가 1908년부터 10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음식점인 것으로 소개되며, 메뉴에 니우난미엔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황원지가 실제 존재하는 장소와 음식을 자신의 작품에 참고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이는 당시 차이나타운에서의 작가 자신 또는 주변 화인들의 음식과 관련된 경험을 세부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에서 ‘삼워’는 여러 번 등장한다. 저녁 늦게까지 5·4운동 30주년 기념행사를 연습하고 있는 화인 동료들을 응원하기 위해 야식거리를 고르는 상황에서 ‘삼워’가 언급된다.

“너 먼저 차로 돌아가, 난 ‘잉구(鶯咭)’에 가서 커피 몇 잔이랑 케이크 좀 사서 연습하고 있는 사람들 위로하고 올게.”

“‘삼워’에서 팅짜이죽(艇仔粥) 몇 그릇 사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저우궈량(周國良)이

54) 이민자, <중국인 이민자의 미국사회로 통합과 차이나타운(Chinatown)의 역할>, 《중소연구》 39권4호, 2016.

55) 현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동명 음식점 ‘三和’의 영문 이름은 ‘Sam Wo’이다. 이는 ‘三和’의 광동어 발음이며, 고유 명사이기에 한글 표기도 그 발음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56) 餘榮祖知道小念祖不大習慣吃西餐，今晚上沒吃飽，便帶他到三和去吃一碗牛腩面。黃運基, 《奔流》, 沈陽出版社, 1996, p.124.

말했다.

“그럼 케이크 말고 죽을 사면 되겠다. 그래도 커피는 사야 돼, 정신 차리는 데 도움이 되니까 말이야!”<sup>57)</sup>

위의 인용문처럼 앞서 이야기되었던 ‘삼워’라는 차이나타운 음식점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듯 보이는 상황에서 또 한 번 등장하며 당시 화인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 표현되었다. 위의 인용문을 통해 당시 ‘삼워’라는 음식점이 그들에게 고향의 음식을 찾을 수 있는 곳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미국에서 생활하는 화인들에게 중국 음식점은 고향의 음식을 제공하며 중국의 음식문화를 유지할 수 있는 곳이었다. 작품에 등장하는 중국 음식점과 중국 음식을 통해 당시 차이나타운에서의 화인들의 음식문화를 들여다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위진탕은 이민국에 구금되어 있는 화인들을 방문하려 갈 때 여러 종류의 딤섬을 사온다.

위진탕은 딤섬 세 상자를 샀다. 차슈바오(叉燒包), 하가우(蝦餃), 편궈(粉果), 쇼마이(燒賣), 에그타르트(蛋撻), 스프링롤(春卷) 등 없는 게 없었다. 그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 것을 보고 모두에게 딤섬을 나누어 주어 먹도록 했다.<sup>58)</sup>

위의 인용문과 같이 어쩌면 사소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딤섬의 이름도 그대로 사용하고 나열하여 허구인 작품에 사실성을 부여한 것처럼 보인다. 이렇듯 작품에는 차이나타운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화인들의 음식문화와 관련된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화인들이 미국에서 자신들의 전통 식습관을 잊지 않고 유지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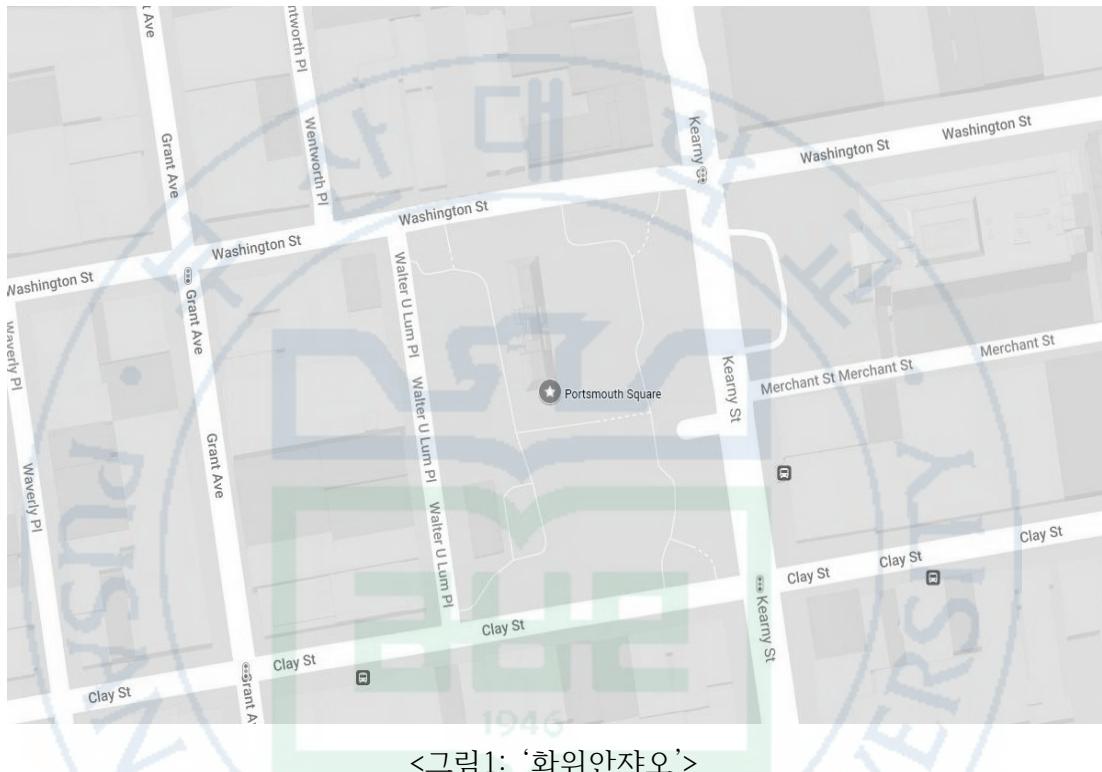
두 번째로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광장 ‘포츠머스 광장(Portsmouth Square, 花園角)’이다. 이곳은 작품 속 화인들의 생활모습이 드러나는 곳이자 다양한 활동을 수용하는 장소이다.

“차이나타운의 이 작은 지역에서 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포츠머스 광장 (Portsmouth Square, 砵士茂廣場)뿐이다. 차이나타운의 가장 적당한 모퉁이에 있으며,

57) “先回到車裏，我到鶯咭買幾杯咖啡和蛋糕慰勞慰勞在土庫底彩排的人員。” “到三和買幾碗艇仔粥豈不更好？”周國良說。“那我就不買蛋糕，買粥好了，但咖啡還是要買的，幫助提神嘛！” 黃運基，《奔流》，沈陽出版社，1996，p.214.

58) 餘錦棠買來了三大盒點心。叉燒包、蝦餃、粉果、燒賣、蛋撻、春卷，應有盡有。他見來了這麼多人，便把點心分給大家吃了。黃運基，《奔流》，沈陽出版社，1996，p.77.

키어니 거리(Kearny Street, 堅尼街)를 끼고, 클레이 거리(Clay Street, 企李街)와 워싱턴 거리(Washington Street, 華盛頓街) 사이의 반 거리에 있다. 이곳은 화인들이 모여 햇볕을 쬐고 이야기를 나누는 곳으로, 특히 친척도 친구도 없는 외로운 노인들은 맑은 날이면 이곳 나무 의자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즐기거나 바둑을 두거나 아니면 아예 편안히 눈을 감고 있는데, 마치 기억을 더듬는 듯 보인다. 화인들은 이곳을 ‘화위안쟈오(花園角)’라고 부른다.”<sup>59)</sup>



작품 속 ‘화위안쟈오’의 모습은 반세기가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작품에서의 모습과 같이 차이나타운에서 화인들의 중국식 생활방식을 유지할 수 있는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 차이나타운을 걷다 보면 보이는 작은 공원 ‘화위안쟈오’는 늘 사람들이 모여 있는 따뜻한 공간이다. 작품에서 소개하듯 이 곳에는 햇볕을 쬐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 바둑을 두는 사람, 앉아서 쉬거나 가볍게 몸을 풀고 중국 전통 ‘태극권’을 연마하는 사람들이 보이며, 차이나타운의 크고 작은 행사를 위해 화인들이 즐겨 모이는 장소이기도 하

59) 華埠這狹小的一塊地方，唯一一個算得上是公園的，只有砵士茂廣場了。它位於華埠最適中的一隅，在堅尼街夾花園角，企李街夾華盛頓街之間，只有半個街位。這是僑胞們集在一起曬太陽和聊天的場所。特別是那些無親無故的孤寂老人，他們在晴天的時候，來到這裏排坐在木椅上，享受溫暖的陽光，下下棋，或索性閉目養神，像要追憶往事似的。華僑把砵士茂廣場叫做花園角。黃運基，《奔流》，沈陽出版社，1996, pp.29-30.

다. 그곳을 가본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화위안쟈오’에 대한 작가의 구체적인 묘사를 보게 되면 누구나 미국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 있는 ‘화위안쟈오’와 그곳에서의 화인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생생한 현장감마저 느껴지는데, 이는 작품에서 소개되는 ‘화위안쟈오’가 그 위치에 대한 묘사뿐 아니라 그곳에서의 화인의 모습에 대한 묘사도 정확하기 때문이다. 초기에 미국의 차별을 피해 형성된 차이나타운에서 화인들은 시간이 지나서도 자신들의 고유한 생활방식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화위안쟈오’는 화인에게 있어서 크고 작은 행사에 없어서는 안 될 결속의 장소이기도 하다. 작품에서는 미국에 온 이주자들을 구금하여 입국심사를 진행하던 이민국의 실태와 부당한 대우를 알리기 위해 화인들이 함께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장면이 있다. 이때 시위의 시작과 끝은 모두 ‘화위안쟈오’에서 이루어지는데, 시위에 참여하고자 사람들이 집결하는 장소이자 시위가 끝난 후 해산하는 장소가 바로 ‘화위안쟈오’이다. 작품에서는 시위를 도모하는 위진탕이 ‘화위안쟈오’를 시위의 모임 장소로 언급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당시 화인들에게 있어서 차이나타운의 ‘화위안쟈오’가 어떠한 장소로 사용되었는지 알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서의 역할을 통해 당시 화인들의 삶을 엿볼 수 있다.

“우리가 ‘화위안쟈오’를 예약하려면 사전에 경찰서에 신청해 둬야 하네, 그렇지 않으면 곧 집회 장소를 찾을 수 없을 걸세.”<sup>60)</sup>

‘화위안쟈오’에는 이미 200여명이 빽빽하게 서 있다. 나무판자로 임시로 세워진 단상 위에는 나무기둥 양쪽에 넓고 긴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이민국 신이주자 학대 항의 회의’라고 적혀 있다. 현수막 양쪽으로는 확성기 두 개가 걸려 있다.

차량에서 훌러나오는 방송소리가 ‘화위안쟈오’쪽으로 가까워짐에 따라 또 다른 무리의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다. ‘화위안쟈오’는 떠들썩하게 끓어오르기 시작했다.<sup>61)</sup>

이때, 계속해서 ‘화위안쟈오’를 찾은 사람들의 수는 이미 500명에서 600명 정도였고, 이 조그마한 ‘화위안쟈오’를 가득 메웠다.<sup>62)</sup>

60) “我們要預早向警察局申請把花園角訂下來，否則，臨時是無法找到集會場地的。” 黃運基，《奔流》，沈陽出版社，1996，p.63。

61) 花園角已經密密麻麻的站著二百多人。用木板臨時架起的講臺上，木柱兩旁掛著一條又寬又長的橫幅，寫著“抗議移民局虐待華人新移民大會”。橫幅的兩側，裝著兩個擴音器。隨著汽車廣播的呼喊逐漸駛近花園角，又有一大群人湧到這個露天會場上。花園角沸騰起來了。黃運基，《奔流》，沈陽出版社，1996，p.64。

62) 這時，陸陸續續來到花園角的群眾，已經有五六百人之多，把小小的花園角擠得水泄不通。黃運基，《奔流》，沈陽出版社，1996，p.67。

“모두 질서를 유지해주시고, 우리는 ‘화위안쟈오’로 돌아가서 다시 얘기합시다.”<sup>63)</sup>

위의 네 가지 인용문을 통해 위진탕이 시위를 위한 모임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미리 ‘화위안쟈오’를 예약하는 것과 ‘화위안쟈오’에 시위를 위해 화인들이 빼곡하게 들어찬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이들의 시위가 끝나는 장소 또한 ‘화위안쟈오’인 것을 통해 당시 화인들에게 있어 차이나타운의 ‘화위안쟈오’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봉제 공장에 대한 묘사이다. 중국 이민 가족의 여성들은 주류사회로부터의 배척과 차별을 받았을 뿐 아니라, 생활 근거와 행동 반경이 차이나타운이라 부르는 중국인 집중 거주 지역으로 국한되어, 전통 중국의 관습의 무게 또한 느낄 수밖에 없었다. 또한 제한된 노동 기회로 인해 이들은 세탁소, 음식점, 식품가게나 봉제 공장의 무임금 또는 저임금의 미천한 직종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다.<sup>64)</sup> 그중 당시 유행하던 의류공장에 대한 묘사를 통해 당시 차이나타운에서 일하는 장소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차이나타운 텐 호우 사원(Tin How Temple, 天後廟)이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리화(麗華)’ 봉제 공장 안에는, 20여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바쁘게 일하고 있다. 재봉틀이 돌아가는 소리는 마치 선율이 좋은 노래처럼 이따금씩 소리를 낸다. 소리는 여공들의 기술에 따라 느리거나 빠르며, 높거나 낮다.

20여명의 여성 노동자들 중에는 중년, 노년의 중국인 여성이 많으며, 청년은 거의 없다. 차이나타운의 봉제 산업에는 100여개의 일자리가 있으며, 2,000명에 가까운 중국인 여성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sup>65)</sup>

위의 인용문을 통해 이곳에서의 중국 이민 가족의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제한된 노동의 범위로 인해 봉제 공장에서 함께 모여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작품에서는 이들이 바쁘게 일을 하고 있지만 잡담도 나누고 농담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작품 속 묘사되어 있는 분주하지만 경쾌한 분위기를 통해 그 당시 그 곳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은 열악하고 제한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고용주와 고용인이라는 위치에 상관없이 모두 화기애애한 모습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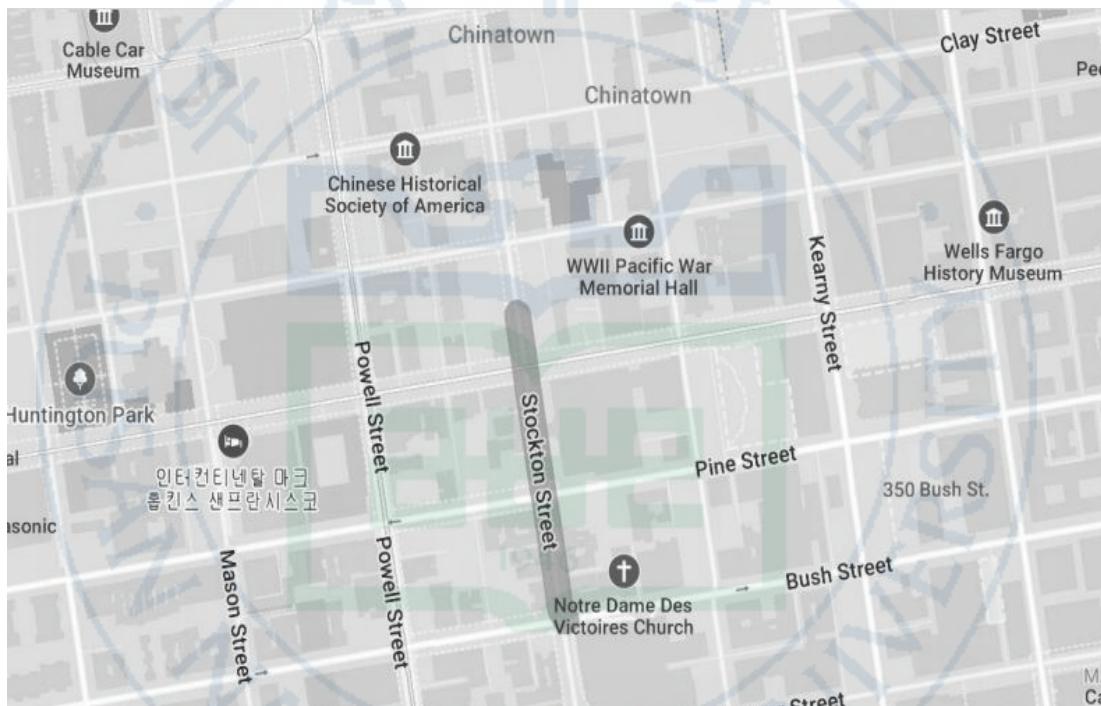
63) “請大家守秩序，我們回去花園角再說。” 黃運基, 《奔流》, 沈陽出版社, 1996, p.72.

64) 김연진, 〈19세기 말 20세기 초 미국 내 중국 이민 여성과 가족〉, 〈미국사연구15〉, pp.1-31, 2002.

65) 坐落在華埠天後廟街的麗華車衣廠內，二十多個女工正在緊張地工作著。車衣機的軋機聲，像一首很有旋律的樂章，發出陣陣音響； 聲調時疾時慢，或高或低，就憑女工們的精細技巧。二十多名女工之中，中年、老年華婦居多，青年女車衣工是絕無僅有的。華埠車衣這行業，有工百多間，雇用了近二千名華裔女工。這是戰後華埠興起的一種行業。黃運基, 《奔流》, 沈陽出版社, 1996, p.107.

보여주는데. 함께 일하며 이야기 나누는 장면이 정감 넘치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사실적으로 재현되는 이 모습은 과연 역사 속 당시의 상황을 사실 그대로 재현한 것일까 아니면 작가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희망을 담아 만든 이상적인 모습의 허구일까. 작품에서는 앞서 언급했던 아픔의 역사를 뒤로 하고 차이나타운에서 일하는 화인의 모습마저 생동감 넘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네 번째로 차이나타운의 거리의 모습을 재현하였다. 황원지는 차이나타운 곳곳의 거리 이름을 《격류》에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그 거리에 대한 설명을 통해 차이나타운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듯하다.



<그림2: 스톡튼 거리>

작품에서 이제 막 출입국 사무소 13층에서 풀려나온 리하오란은 위진탕을 만나고자 전화를 하고, 마침 퇴근 후 집에 들어와 밥을 먹으려던 위진탕은 함께 식사를 하자며 리하오란을 자신의 집에 초대한다. 아직 차이나타운이 익숙하지 않아 길을 헤매는 것을 걱정하는 리하오란에게 위진탕이 길을 설명해주는 장면이 있다.

“저는 아직 여기가 익숙하지 않아서 뭘 타야하는지도 잘 모르는 걸요.”

“괜찮아, 어렵지 않다네. 내가 알려주지. 차이나타운 스톡튼 거리(Stockton Street,

士德頓街)에서 버스를 탄 다음에 캘리포니아 거리(California Street, 加利街)에서 갈아 타고 15개 블록만 지나면 도착한다네. 나는 길모퉁이에서 기다리겠네. 잘못될 리가 없 어. 기억하게, 캘리포니아 거리(California Street, 加利街)에서 환승하고 15개 블록을 지나면 내려야하네.”<sup>66)</sup>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은 많은 거리(Street)로 이루어져 있지만 차이나타운의 가장 대표적인 거리 중 하나가 바로 여기서 언급하는 스톡튼 거리(士德頓街, Stockton Street)이다. 이 거리는 차이나타운의 주요 쇼핑 및 비즈니스 거리로, 주로 현지의 화인들이 찾아와 생필품을 구매하는 곳이다. 차이나타운의 대표적인 거리의 이름을 사용하여 길을 설명하는 장면을 통해 길을 찾는 작품 속 상황도 마치 사실인 듯 느껴지고, 작품 속 인물과 함께 길을 찾아가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 동시에 작품 속 상황과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이는 분명 《격류》의 귀중한 가치 중 하나일 것이다.

거리에 행인은 드물었고, 내리는 빗소리와 자동차의 소음을 제외하면 샌프란시스코 전체가 잠들어 있는 듯했다.

적막한 비 오는 밤에 혼자서 길을 걷는 것은 후스밍(胡思明)에게 그리 익숙하지 않았다. 그는 워싱턴 거리(Washington Street, 華盛頓街)에서 퍼시픽 거리(Pacific Avenue, 柏思域街)까지 걸어갔다가 다시 서쪽으로 두 블록을 걸어 후이한(胡義漢)의 집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는 약간 출출한 것을 느끼고 차이나타운으로 가서 뭐라도 좀 먹기로 결정했다.

후스밍은 그랜트 거리(Grant Avenue, 都板街)에서 또 다른 풍경을 발견하였다. 거리에는 행인이 많지 않았고 거리의 잡화점, 선물가게, 닭·오리가게와 금은방은 모두 문을 닫았지만 중문과 영문으로 된 네온사인은 여전히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sup>67)</sup>

상술한 것처럼 황원지는 작품 속 등장하는 차이나타운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모호하게 언급하거나 상상 속 그 어떤 허구의 것으로 구상하지 않았으며, 사소한 것으로 간주

66) “我地方不熟，搭什麼車還未弄清楚呢。”“不要緊，很容易的，我告訴你：你在唐人埠士德頓街搭巴士到加利街轉車，數十五個街口就到了。我在街角等你，錯不了的。記住：在加利街轉車後十五個街口就下車。黃運基，《奔流》，沈陽出版社，1996，p.99。

67) 街道上，行人稀少，除了密密的雨聲和汽車駛過的噪音之外，好像整個舊金山都睡著了。在寥寂的雨夜中，獨個兒走路，胡思明是不大習慣的。他從華盛頓街走到柏思域街，再往西走兩個街口便到了胡義漢家裏了。但他覺得有點餓，便決定到華埠吃點東西。胡思明走到都板街上，發覺又是另一番景象，街上行人雖然不多，所有的雜貨店、禮物店、雞鴨店、金器首飾店都已關了門，但中英文的霓虹照牌卻仍然閃閃發亮，五光十色。黃運基，《奔流》，沈陽出版社，1996，p.232。

하여 생략하지도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작품에 미국으로 이주하여 살아가는 하층 화인들의 삶과 차이나타운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써내려갔다. 이 모든 것은 실제로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역사적 흔적이기에 이를 통해 당시 하층 화인들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또한 황원지가 작품을 통해 화인의 생활이 결코 어둡고 암담하지만은 않았음을 알리려는 듯 보인다. 비록 작중 인물들을 통해 슬픈 역사적 현실이 나타나지만 차이나타운에 정착하여 생활하는 모습은 침체되어 있지 않고 역동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비참한 역사적 배경에서 생겨난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은 현재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차이나타운으로, 많은 관광객들에게 필수적인 코스로 자리 잡게 된 주요 관광 명소이다. 이곳에서는 여전히 화인들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언어가 유지되고 있지만, 이곳은 더 이상 초기 화인들이 어쩔 수 없이 밀집해서 생활하던 아픔의 장소가 아니다. 관광객들은 화려한 외관과 독특한 볼거리, 그리고 전통적인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차이나타운을 방문한다. 그리고 화인들은 이곳을 드나들며 작품 속 화인과 동일한 모습으로 활기차게 그들의 삶을 지속해나간다. 어쩌면 이러한 사실 때문에 작품 속 모든 묘사가 생동감 넘치고 희망적으로 보이는 건지도 모르겠다.

## 제4장 《奔流》에 나타난 풀뿌리적 모습

### 제1절 화인의 사회적 지위와 풀뿌리적 모습

초기 화인이 미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시기부터 꽤 오랫동안 미국으로 이주하여 살아가던 대다수 화인의 지위는 백인들과 달리 낮았으며, 특히 노동자의 신분으로 이주하여 살아가야 했던 하층 화인은 미국 사회의 하층부에 머물렀다. 이들은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도 않았으며, 학업을 위해 유학을 온 것도 아니었기에 생계를 위해 비교적 열악한 환경과 조건의 하층 노동을 위주로 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다. 《격류》에서는 장기간 사회의 하층부(밑바닥)에서 살아가야만 했던 하층 화인의 사회적 지위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 지위로부터 비롯된 지속적인 하층민적 경험으로 인해 자신들을 하층민으로 생각하고, 그 생각이 고착화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나타나게 된 하층민의 특징 즉 풀뿌리적인 모습은 작품 곳곳에 잘 드러나는데, 이는 그들이 겪어야 했던 차별과 배척 등의 고난과 낮은 사회적 지위로 인해 생겨났음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사회적 지위를 잘 표현한 부분을 세 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하층 화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이다. 작품 속에서 위롱주는 미국에서 생계를 위해 백인인 닥터 고든(哥頓醫生)의 집에서 개인 요리사로 일하고 있다. 하루는 닥터 고든이 귀한 손님을 초대해 저녁을 대접한다고 하여 아들 위넨주에게 일손을 거들어 달라고 요청한다. 손님들을 대접하던 중 위롱주는 실수로 여성 손님에게 술을 쏟았는데, 그의 실수에 대한 손님들의 반응은 참혹하기만 하다.

“위넨주가 아버지와 함께 보스의 손님을 대접할 때, 아버지가 실수로 술을 여자 손님에게 쏟아버렸다. 아버지는 그 여자 손님에게서 한 차례 욕설을 들었고, 뿐만 아니라 그 여자의 남편에게서 뺨도 맞았다.

“어떻게 사람을 때릴 수 있어?” 위넨주는 몹시 화가 나서 국자를 탁자 위에 떨어뜨리고는 큰 소리를 치며 말했다. 그런데 아버지는 명하니 서서 연신 “미안하다”는 말만 하며 두 눈 가득 고인 눈물을 삼켰다.<sup>68)</sup>

68) 他和父親一起招待波士的貴賓時，父親不慎把酒傾瀉在一位女賓的身上，他被女賓斥了一頓還不算，還遭她丈夫在父親的臉上摑了一巴掌。“你怎能打人？！”小念祖忿怒極了，正在舀湯的他，激動地把勺子掉在桌上，喝斥說。而他父親卻呆站著連聲說“對不起”。忍著滿眶淚水。黃運基，《奔流》，沈陽出版社，1996，p.94。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위롱주는 자신이 일하는 곳에서 자신의 백인 고용주 손님들에게조차 하대를 받고 모욕적인 일을 당하는 사회적 지위에 놓여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작품에서는 화인이 하층 노동을 하면서 미국의 백인들과 동등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현실이 드러난다. 이는 작가 황원지가 미국에서 직접 경험했던 일에서 비롯된 이야기이다. 황원지가 아버지를 따라 미국에 왔을 때 그의 아버지는 백인의 의사 집에서 집사 일을 하고 있었고, 황원지가 아버지를 도와 일을 거들 때 보스가 아버지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 대부분의 구세대 미국 화인은 역경에 순종하는 데 습관이 되어있었고, 그의 아버지도 예외는 아니었기에 황원지가 굴욕을 참을 수 없다고 느꼈을 때 그의 아버지는 그저 주방에서 몰래 눈물만 흘렸다고 한다.<sup>69)</sup> 또한 하층 노동자로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화인들은 백인들에게 흑인들과 같거나 못한 대우를 받았으며, 무시를 당하는 일이 흔히 일어났다. 위넨주는 아버지의 고용주인 백인 의사 닥터 고든의 딸 줄리(茱莉)와 우정을 쌓아간다. 줄리는 백인임에도 불구하고 인종 차별적인 시선이나 편견 없이 위넨주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지만 그녀의 백인 친구들은 당시 일반적인 백인들의 생각과 시선으로 위넨주와 그의 흑인 친구 제이미(占美)를 대한다.

줄리는 그에게 자신의 세 친구를 소개했다. 위넨주도 제이미를 그들에게 소개했다. 그런데 그의 예상과 달리 줄리의 세 친구들은 경멸의 눈빛으로 제이미를 보았고, 그중 한 명이 모욕적인 어투로 “누가 천한 흑인놈이랑 친구하냐!”라고 말했다.

위넨주는 이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는 씩씩거리며 되물었다. “너 그게 무슨 뜻이야? 네가 얘랑 친구하기 싫다니, 얘가 너랑 꼭 친구하고 싶은 것도 아니잖아, 왜 모욕을 줘?”

“네 일이나 신경 써!” 그 남자아이는 조금도 미안한 기색 없이 오만한 태도로 말했다. “이 중국놈아(Chinaman, 差拿曼)! ”<sup>70)</sup>

“너 한 번만 더 말하면 가만 안 둬!” 위넨주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쏘아보며 스케이트를 벗었고, 정말 그 애와 싸우려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그 아이는 “다시 말하면 뭐? 네가 날 때릴 자신이나 있냐? 중국놈!” 하고 말하며 힘으로 위넨주를 밀었다.<sup>71)</sup>

69) 徐乃翔, 〈一個真誠的人——記美國華文作家黃運基〉, 《華文文學》, 第01期, 1998.

70) Chinaman(差拿曼), 원래는 단순히 중국인을 지칭하는 말이었지만, 이후 중국인 혹은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말로 사용됨.

71) 茱莉便向他介紹她的三個朋友。小念祖也介紹占美給他們認識。但出乎他的意料之外，茱莉那三個朋友卻以輕輕蔑的目光瞪了占美一眼，其中一個還用侮辱性的字眼說：“誰要跟黑賤種做朋友！”

위의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당시 화인은 미국 사회에서 백인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으며, 당시의 흑인들과 같이 인종차별의 대상이 되었고, 사회적인 지위가 백인들에 비해 낮았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거주지의 열악한 환경이다. 작품에서는 위진탕이 사는 곳에 대해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그는 흑인들이 살고 있는 경계지역의 빈민촌에 살고 있는데, 작품에 묘사되어지는 주거 환경은 아주 열악하다.

샌프란시스코 필모어(Fillmore, 菲摩)지역은 흑인 빈민촌이다. 이 지역 전체의 건물들은 마치 무서운 천재지변을 겪은 것처럼 구석구석 엉망이고 거리는 매우 더럽다. 필모어 거리와 인근 거리에는 전당포가 즐비하게 있고, 주류 판매점, 식료품점 및 중고의류를 판매하는 구멍가게도 곳곳에 있다. 모든 상점에는 커다란 철문이 설치되어 있고, 사람들은 그 속에서 마치 감옥에 들어간 듯 공포감을 불러일으킨다. 유일하게 눈에 띄는 건물은 대리석으로 만든 샌프란시스코 은행으로, 이 빈민촌 중심에 우뚝 솟아 마치 이 감옥의 옥장과도 같은 단단한 몸으로 모든 것을 깔보는 듯하다.

거리 양옆, 상점 밖, 낮이든 밤이든, 흐리든 맑든 상관없이 언제나 삼삼오오 흑인들이 무리지어 다니며, 어떤 이는 서있고, 어떤 이는 앉아 있지만 그들은 모두 실업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이 부유한 사회의 버려진 집단이다. 그들의 눈빛은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데, 절망적인 모습이다. 하지만 이러한 어두운 눈빛에는 폭력적이며 분노에 가까운 눈빛이 어른거린다.

[…]

위진탕과 위롱주는 바로 이 흑인 빈민촌 변두리에서 살고 있다.<sup>72)</sup>

---

小念祖聽了十分惱火，忿忿地質問他：“你這是什麼意思？你不跟他做朋友，他也不一定願意跟你做朋友的，為什麼要侮辱他？”“關你媽的事！”那個男孩子毫無歉意，更加傲慢地說，“差拿曼！”“你再這樣說我就揍你！”小念祖怒目以視，他把冰鞋脫了下來，真的擺出要跟那男孩子決戰的姿勢。“再說又怎樣？難道你敢打我？差拿曼！”那男孩子不但說了，並且用力推了小念祖一下。黃運基，《奔流》，沈陽出版社，1996，p.127。

72) 舊金山菲摩區，是黑人貧民窟。整個地區的樓房，像經過一場可怕的天災一樣，到處破破爛爛，百孔千瘡，街道汙穢不堪。菲摩街和附近的幾條街，當鋪比比皆是，酒吧林立，雜貨店和賣舊衣服的小店也到處可見。所有的商店都裝上了大鐵閂，人們置身其中，像走進了一座大監獄，它使人馬上產生一種恐懼感。唯一突出的一座樓宇，是用大理石砌建而成的金山銀行，它巍然屹立在這個貧民窟的中心，彷彿是這座監獄的獄長，以它那堅碩無比的軀體，傲視一切。街道兩旁，商店門外，不管是白天黑夜，不管是陰天晴天，總有三五成群的黑人，老的幼的，男的女的；有的站著，有的坐著，但他們都有一個共同點：失業。他們是這個富甲天下的社會被遺棄的一群。他們的眼神毫無光彩，那是一種絕望的神態。但在這種陰暗的眼神裏，人們隱約可以窺見一絲近乎兇暴的、憤怒的目光。[…] 餘錦棠和余榮祖就住在這個黑人貧民窟的邊緣。黃運基，《奔流》，沈陽出版社，1996，pp.86-87.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위진탕과 위롱주가 살아가는 곳은 미국에서도 어쩌면 가장 열악한 곳일 수 있는 흑인 빈민촌이다. 게다가 위롱주는 자신의 집이 아닌 위진탕의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는 것으로, 작품 전반부에서 아들 위년주가 미국으로 온 이후로도 얼마 동안 위진탕의 집에서 함께 생활한다. 작품에는 주거지의 열악한 환경이 마치 눈앞에 나타난 것처럼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어수선하고 더러울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빈민촌의 이미지는 얼핏 봐서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거환경이 아니다. 이렇듯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분명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었을 것이다. 작품에는 아주 화인이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도 드러난다.

위진탕은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아들이 다 자라면서 제 살길을 찾아간 이후 딸 하나만 남게 되었는데, 그의 집 형편은 사실 흑인 이웃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었다. 그가 살았던 집은 1906년 대지진에 타버리지는 않았지만 반세기가 넘는 세월 비바람을 맞으면서 집의 널빤지가 낡아 너덜너덜 허물어질 것 같은 건물이었다.

위진탕의 딸 헬렌(海倫)은 오래전부터 이사를 가지고 아우성이었다. 하지만 위진탕은 늘 고집스럽게 말했다. “조금 더 있어 보고 다시 얘기하자, 여기 집세가 싸잖아, 이사는 돈이 많이 들어.”<sup>73)</sup>

위의 인용문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먼저, 이들이 결코 이러한 주거환경을 원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다른 곳으로 이사 가기를 원했던 딸 헬렌을 통해 이들이 주거환경의 열악함을 충분히 체감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이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 남아 살아간다는 것이다. 위진탕은 자신들의 경제적인 여건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딸 헬렌과 함께 사는 긴 세월 동안 이사를 결정하지 못하며, 헬렌이 결혼을 해서 출가한 이후로도 자신은 이곳에 남는다. 미국에서 하층 화인으로 살아가는 그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여러 직업을 가져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작품 속 화인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기에 한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져야 겨우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다. 작품에서는 미국으로 가는 배 위에서 처음으로 미국에 가는 리하오란과 미국에서 꽤 오랫동

73) 餘錦棠的妻子早逝，兒子長大都各奔前程去了，只剩下一個女兒，他的家其實比他的黑鄰居好不了多少。他所住的房子，雖然1906年的大地震沒有把它震塌、焚毀，但經過逾半個世紀的風吹雨打，房屋的木板早已殘舊不堪，破破爛爛，是一座危樓了。餘錦棠的女兒海倫早就嚷著要搬家。但餘錦棠總是執拗地說，“再過一段時間再說吧，這兒租金便宜，搬家很花錢的。” 黃運基，《奔流》，沈陽出版社，1996，pp.86-87。

안 생활을 했던 위롱주가 미국에서의 직업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고향에서 해왔던 일인 가르치는 것에 관심을 보이는 리하오란에게 위롱주가 현실적인 상황을 이야기해주는 장면이 나온다.

“가르치는 일도 좋지, 차이나타운에는 5개의 학교가 있으니, 교직자리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게나.” 위롱주가 말했다, “하지만 가르치는 일만 하는 건 안 될 걸세, 그곳 화교 학교들은 오후 4시나 되어서야 수업을 하기 때문에, 수업시간이 매일 3시간 남짓한 시간밖에 안돼서 월급이 적거든, 그것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도 힘들어. 다른 일도 같이 하면 괜찮아, 무조건 다른 직업도 찾아야 하네.”<sup>74)</sup>

또한 이제 막 미국에 도착한 리하오란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며 위진탕에게 교직 자리를 알아봐 줄 수 있는지 물어보자 위진탕은 위롱주가 해주었던 것과 같은 조언을 해준다.

“가르치는 일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네, 반드시 다른 일도 찾아서 해야만 한다네.”<sup>75)</sup>

결국 리하오란은 생활의 안정을 위해 학교에서 교사로 일을 하면서 서점에서도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간다. 리하오란은 미국에서 홀로 살고 있는 아버지를 위해 미국으로 온 청년이다. 그는 중국에서 교사였으며 미국에서도 화교 학교의 교사로 일을 하는 지식인 층에 속하지만, 미국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는 것과 영어를 할 줄 모른다는 것 때문에 미국 주류 사회가 아닌 차이나타운을 기반으로 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또한 리하오란은 미국 사회에서 풍족하게 지낼만한 경제적 여건이 부족하여 한 가지 이상의 일을 동시에 해야만 한다. 이러한 조건이 그를 하층사회에 머물게 하는 큰 요인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여러 직업들을 동시에 소화해낼 수밖에 없는 그들의 경제적 수준과 그들이 하는 일을 통해 작품에서는 하층민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잘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하층 화인의 경제적 여건은 위롱주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는 아무런 연고 없이 미국으로 이주한 노동 이주민으로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낮에는 공립 초등학교 주방에서 일을 하고 부속 시설인 탁아소 아이들의 점심도 준비해

74) “教書也好，唐人埠有五間中小學，你可以試試有沒有教職位。” 餘榮祖說，“但光教書是不行的，因為這些華僑學校，下午四時才上課，每天不過三幾個小時，薪酬很低，靠它不可能維持生活，兼職可以，必須另找其他職業。” 黃運基，《奔流》，沈陽出版社，1996, p.26.

75) “你光靠教書養不了自己，你必須另找別的工作做才行。” 黃運基，《奔流》，沈陽出版社，1996, p.103.

주며, 퇴근 후 저녁에는 미국인 닥터 고든의 집에서 개인 요리사로 일을 한다.

위롱주는 위진탕과 자오즈창(趙子常)에게 얼마의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갚아나가는 것에 급급하여 열심히 일했다. 그는 낮에 공립 초등학교에서 요리사로 일하고, 부설 탁아소에서 아이들을 위해 점심을 만든다. 오후 3시에 일을 마치고 다시 닥터 고든의 집으로 가서 개인 요리사로 주방 일을 하는데, 너무 바빠서 숨 돌릴 틈조차 없다.<sup>76)</sup>

위의 인용문에 나타난 것과 같이 위넨주는 이렇게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지만 그가 벌어들이는 수입은 집세를 내고 고향 가족들에게 보내기에도 넉넉지 않으며, 동료에게 빌린 빚을 겨우 갚으면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이다. 이렇듯 작가는 작품에서 여러 사례를 통해 미국 사회에서 하층 화인들의 경제적인 수준이 아주 미미한 수준인 것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작품에서 하층 화인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하층민으로서의 경험으로 인해 스스로를 하층민으로 인식하고 제한하여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 때문에 하층 화인에게는 하층민으로 살아가려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보았고, 이를 ‘풀뿌리’의 하층성이라는 특징으로 보고 ‘풀뿌리적 모습’의 한 부분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작품 속에서 작중인물인 위롱주를 통해 드러나는 풀뿌리적 모습을 세 가지로 분석하였다.

첫째, 스스로가 하층민이라고 생각한다. 작품에서 위롱주는 자기 자신을 하층민이라고 여기며 미국 사회에서 계속해서 하층민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한다. 그는 자신이 백인들과의 사회적 지위가 다르다고 믿으며 살아간다. 그렇기에 자신이 일하고 있는 백인 의사 가족들과 자신의 신분이 다르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아들 위넨주가 줄리와 가깝게 지내는 것을 두려워하기까지 한다. 작품 속에는 여러 번에 거쳐 위넨주와 줄리가 우정을 쌓아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위롱주는 아들 위넨주를 타이르고 만류하며 자신들과 그들의 신분이 다르기에 가까이 지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닥터 고든 부부가 그들의 딸이 자신의 아들과 가깝게 지내는 것을 알게 되기라도 할까봐 초조해하며 불안해한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오랜 세월 미국에서 겪었던 차별적 경험을 통해 고착화된 하층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스스로 자신을 백인과 구분된 열등한 사회적 위치에 두고서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다.

76) 餘榮祖因為欠下餘錦棠和趙子常一筆錢，急於還債，拼命做工。他日間在一間公立小學當廚師，為附屬托兒所的孩子們做午餐。下午三點鐘下班後，又到哥頓醫生家裏當私家廚仆。一天到晚忙得透不過氣來。黃運基，《奔流》，沈陽出版社，1996，p.119。

둘째, 참고 인내한다. 미국에서 오랜 세월 살아온 위롱주는 미국에서는 어떤 불의한 일 앞에서도 참아야한다고 생각하며 아들 위넨주도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그는 미국으로 가는 배에서 아들에게 당부한다.

“우리가 밖으로 나가 생계를 꾸리려면 화를 조금 참고 모든 일에 인내해야 한다.”<sup>77)</sup>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위롱주는 미국에서의 오랜 경험으로 인해 모든 일에 한 발 물러서서 참는 것이 죄선이라고 생각하고, 그 어떤 일에도 관여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러한 점은 작품의 초입부터 잘 드러난다. 그는 자신의 아들 위넨주가 입국 심사를 위해 이민국에 갇혀 있을 때에도, 화인들이 이민국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폭로하고 시위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참여하지 않는다. 또한 위넨주가 시위에 가담하는 것에 대해 염려하고 이러한 흐름에 함께 휩쓸리지 않도록 당부한다. 그리고 심지어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동하는 위진탕과 리하오란을 말리며 주의를 주기도 한다. 그는 작품 내내 참고 인내하려는 면모를 보여준다. 그는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살면 차별적 대우와 부당함은 견뎌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자신의 아들 앞에서 일하는 집보스의 손님에게 뺨을 맞을 때에도 그는 그저 참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셋째, 사회로부터 고립된다. 하나의 직업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온종일 일만 해야 하는 삶에서 일 외의 삶은 사치로 간주하고, 사회로부터 자발적으로 고립되는 것을 볼 수 있다.

1946

저녁에 위롱주가 위진탕을 찾아왔다. 그는 위넨주와 함께 위진탕의 집을 나와 살게 된 이후 몇 달 동안이나 이곳을 찾아온 적이 없었다. 그는 일종의 강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위진탕에게 빚진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 동안 매달 아껴 먹고 적게 쓰며 계속해서 돈을 갚아나가고 있지만, 이사를 나오며 생활비가 급증함에 따라 빚을 갚을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동안 위진탕을 찾아오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이다.<sup>78)</sup>

위의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위롱주는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일하지만 위진탕에게 돈을 빌리고 2년이 다 되어가도록 빚을 다 갚지 못한다. 둘은 막역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77) “我們出外謀生，少不免要受點氣，凡事要忍耐才好。”黃運基，《奔流》，沈陽出版社，1996，p.14.

78) 晚上，余榮祖來找餘錦棠。自從他和念祖搬出餘家後，幾個月來，他就一直未來過餘家。他有一種強烈的內疚感。他欠下餘錦棠的錢，都快兩年了，雖然每個月省吃儉用，陸陸續續的還了一部分，但搬家後生活開銷激增，能省下還債的錢不多。這是她不來找餘錦棠的原因之一。黃運基，《奔流》，沈陽出版社，1996，p.199.

고 위롱주는 그 죄책감으로 인해 위진탕을 찾아오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하층 화인이 미국에서 살아가기 위해 고단한 생활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회로부터 고립되어가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다.

초기 중국인 이민자들의 미국사회 적응의 특징으로는 남성 헐로 우선 이주, 차이나타운에서 고립된 생활, 미국인으로부터의 배척 등을 지적할 수 있는데,<sup>79)</sup> 작품 속 위롱주를 통해 이러한 특징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는 모두가 쉬는 크리스마스에는 쉬지 않고 일을 계속하기도 하고, 모두가 들떠서 거리로 나와 새해를 맞이하는 새해 전야에는 혼자 집에서 라디오나 듣겠다고 한다. 이러한 모습은 모두 고된 일상에 지쳐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하층 화인의 모습을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매일 부지런히 일을 하지만 생계를 이어나가기에도 빠듯한 삶에서 그 밖의 것들은 사치로 간주되는 듯하다. 그렇기에 위롱주는 미국에서 그렇다 할만한 제대로 된 취미나 사회 모임도 없으며, 친구들이나 아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지만 해결하지 못한 채 아주 가끔 즐기는 마작이 전부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모두 하층 화인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담아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작품 속 하층 화인에게서는 미국에서의 낮은 사회적 지위와 지속적인 하층민으로의 경험으로 인해 계속해서 하층민으로 살아가려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하층 화인에 나타난 풀뿌리적 모습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 제2절 화인사회의 특징과 풀뿌리적 모습

작품에 등장하는 화인들이 중국을 떠나 미국에 정착하게 된 배경과 그 원인은 무엇일까? 이병인에 따르면 이는 주로 다음 세 가지 때문이다. 첫째, 생계 문제 때문이다. 둘째, 중국의 정치적 불안정 때문이다. 셋째, 미국의 노동력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먼저 이들이 해외로 떠난 가장 큰 이유는 생계를 위한 것이다. 이는 당시 저자(豬仔)무역<sup>80)</sup>이나 계약 노동의 노동 조건이 열악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민을 떠난 것에서 알 수 있다. 해외로 떠난 노동자들이 많

79) 이민자, <중국인 이민자의 미국사회로 통합과 차이나타운(Chinatown)의 역할>, 《중소연구》 39권4호, 2016.

80) ‘저자무역’은 ‘화인 노동자 송출 무역’이란 뜻이다. 여기서 ‘저자(豬仔)’는 돼지새끼라는 뜻으로, 남자는 豬仔(돼지새끼), 여자는 豬花(암퇘지새끼)로 불렸는데, 이처럼 초기 외국으로 팔려간 중국인 쿨리들은 개돼지 취급을 받는 노예와 같았다.

은 지역을 대상으로 1930년대에 현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생계보충이 그 1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중국 정치의 불안정이 이민을 재촉하는 요인이다. 청 말의 사회 혼란과 태평천국 운동은 이민을 떠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민국시기 여전히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과 동남연해 지방의 종족간의 계투의 빈발 등도 이민을 재촉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sup>81)</sup>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미국에서의 노동력 수요가 급증하였다. 미국은 노예제도가 폐지되면서 이를 대체할 노동력이 필요했고, 미 서부에 막대한 토지의 개척, 1848년 캘리포니아 금광의 발견, 미대륙 횡단철도의 부설은 인구 유입 요인으로 작용했다. 상술한 내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작품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화인들은 그들이 살던 중국의 가난과 어지러운 정세를 피하고자 중국 땅을 떠나 자신들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미국으로 건너와 삶을 모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이 꿈에 그리던 미국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으며, 미국 땅을 밟기 전부터 중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과 고난을 견뎌야만 했다. 이러한 차별과 고난의 원인으로 미국의 화인 정책 변화를 꼽을 수 있다. 화인 노동자인 화공들이 대규모로 이주한 이후, 화공의 값싼 노동력이 백인들의 일자리를 위협했으며, 1877년 캘리포니아가 경제 공황에 빠지자 백인 노동자가 반발하여 화공 배척의 기운이 높아졌던 것이다. 샌드롯(Sandlot)당은 화공문제를 집중 제기하여 그에 따라 1882년 ‘중국인 배척법’이 통과되고 1884년 속증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1892년과 1902년 ‘중국인 배척법’을 다시 10년씩 연장했고, 1904년에 ‘중국인 배척법’을 무기한으로 연장하여 화공의 입국을 제한했으며 그 규정을 더욱 엄격히 했다. 미국은 중국인의 이민을 상인과 학생으로 제한하여 노동자를 포함한 중국인의 이주는 아주 힘들어졌다.<sup>82)</sup> 타국에서의 이러한 어려움은 초기 화인의 심리에 조국 중국에 대한 마음과 강한 향수를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화인들의 심리적 상태는 화인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까? 필자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작품에 나타나는 화인사회의 특징을 네 가지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첫째,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어나간다. 작품 속 등장하는 화인사회의 모습 중 하나는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화인사회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중국인으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발전과 화인사회의 기여를 위해 청년단체인 ‘청년연합회(青聯)’을 만들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조국 중국과 관련된 여러 활동을 기획하고 준비하며 진행한다. 또한 ‘독서회(讀書會)’를 조직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어나가며 중국의 정치 상황 등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볼 수 있다. 작품 속 시대적

81) 이병인, <해외 화인사회의 변화와 ‘국가’ 1840-1949>, <아시아문화연구>, 2011, vol.24, pp.187-214.

82) 이병인, <해외 화인사회의 변화와 ‘국가’ 1840-1949>, <아시아문화연구>, 2011, vol.24, pp.187-214.

배경인 국공 대치 상황에서 청년 리하오란은 중국의 정세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위진탕과 상의하여 ‘독서회’라는 모임을 만든다.

리하오란이 위진탕의 집으로 거처를 옮긴 후, 중국 대륙의 정세가 급격하게 변하자, 그는 위진탕과 상의하여 ‘독서회(讀書會)’를 만들고,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모여 시사를 이야기하고 정세를 분석하며 견문을 넓히고자 했다. 위진탕은 오래전부터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었기에 리하오란의 제안을 단번에 승낙하였다. 자오즈창 부부가 경영하는 봉제공장은 차이나타운에 위치해있으며, 모두의 접근이 용이하여 장소는 이곳으로 정하게 되었다.<sup>83)</sup>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미국이라는 새로운 국가에 정착하여 살아가지만 미국인이 아닌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으로 그들의 생각을 공유하며 모임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현대 중국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인 5.4운동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청년 단체 ‘청년연합회’에서는 기념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한다. 이들은 바쁜 일상에서 시간을 쪼개어 자신들의 맡은 일을 소화해낸다. 또한 그 행사에서 진행되는 주요 프로그램도 중국적인 정체성을 담은 것들로만 이루어져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행사를 위해 당시의 역사적인 현장을 재연한 활보극(活報劇), 《내일까지 싸워라(戰鬥到明天)》를 준비할 뿐 아니라 중국 전통 춤도 준비하고 연습한다. 이 외에도 중국 특색이 짙은 《황하대합창(黃河大合唱)》을 해외에서 처음으로 선보이고자 준비하기도 한다. 《황하대합창》은 항일전쟁시기에 중국에서 널리 알려진 노래이며 주된 내용으로는 중화민족에게 생명의 강이라고 여겨지는 황하의 세찬 흐름을 빌어 항일전쟁에 나선 중화민족의 민족존엄과 투쟁정신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미국에서 화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신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화인신문을 창간하기로 한다.

“우리는 신문 하나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우중원(吳仲雲)이 말했다. “교민들이 마음속에 있는 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 생기도록 말이에요.”<sup>84)</sup>

83) 自從黎浩然搬到餘錦棠家裏住下來後，隨著祖國大陸形勢的急劇變化，他就和餘錦棠商量，組織一個讀書會，經常和知心朋友聚在一起，談談時事，分析局勢，增廣見識。餘錦棠本來早有此意，經黎浩然一提，自然一口答應。趙子常夫婦經營的車衣廠，位於華埠，地點適中，最方便大家，就這樣決定下來了。黃運基，《奔流》，沈陽出版社，1996, p.108.

84) “我們很有必要辦一份報紙。”吳仲雲說，“好讓僑胞有一個發表心聲的園地。” 黃運基，《奔流》，沈陽出版社，1996, p.190.

이는 화인들이 미국이라는 새로운 나라에 정착하지만 자신들이 미국 주류 사회의 백인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행동으로 실행해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에게는 재정적인 어려움과 일손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문 발행 기금을 모으고 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해나가는 것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초기에는 신문을 통해 이익 창출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논의한다. 이러한 결정들을 통해서 화인들이 신문을 창간하려고 하는 목적은 이익을 떠나 순전히 화인 신문의 존재 자체임을 알 수 있으며, 그들이 미국의 신문을 통해서는 낼 수 없는 그들만의 독자적인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자신들의 조국 중국이 잘 되길 바란다. 하층 화인들은 자신들이 겪어야 했던 차별적 경험으로 인해 자신들의 낮은 사회적 위치를 인지하며 살아가며, 이러한 차별과 열등한 사회적 위치의 원인을 자신들의 출신국인 중국이 부강하지 않은 것에 두고 있다.

고향과 가족을 떠나 홀로 미국에서 차별과 고난의 세월을 겪은 위롱주은 미국으로 가는 배 위에서 리하오란이 아버지를 미국에 홀로 둘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라고 하는 말에 미국으로 가는 것이 중국에 있는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

“미국으로 가는 것이 국내에 남는 것보다야 낫지.” 위롱주가 말했다. “어찌 됐든 발전 할 기회가 있지 않나.” 사실 이건 그의 실제 마음속 이야기가 아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에서 25년이 넘게 땀을 흘렸고, 또 25년의 억울한 세월을 겪었는데, 그에게 대체 무슨 기회가 있었단 말인가? 또 그는 얼마나 발전을 했는가? 아직도 그저 돈 많은 집의 주방일이나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는 덧붙여 말했다. “누구나 다 고향을 그리워하지. 멀리 고향을 떠나 와서 그리워하지 않는 이가 어디 있겠나. 만약 나라가 변변하기만 했더라면, 누가 고향을 떠나 처자식과 헤어지고 싶겠나?<sup>85)</sup>

위의 인용문을 통해 위롱주도 생계를 위해 미국으로 건너와 살게 된 것이기에 속으로는 나라가 부강했더라면 나라를 떠나 가족들과 떨어져서 살 필요도 없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미국은 당시 화인들이 중국의 가난과 혼란

85) “去美國總比留在國內好。”餘榮祖說，“好歹有個發展機會嘛。”其實，這並不真是他的心裏話。他在金山流了逾四分之一個世紀的汗，也受了四分之一個世紀的氣，他可有什麼機會？他又發展到哪裏去呢？還不是有錢人家的廚不？於是，他又說：“誰都想家。遠離鄉土，誰不想家呀！要是祖國爭氣，誰願別井離鄉，弄到妻離子散呢？”黃運基，《奔流》，沈陽出版社，1996，p.18.

을 피해 생계를 유지하고자 찾은 새로운 나라이기에 미국에서의 힘난한 삶을 견디다 보면 분명 월망스러운 마음이 솟구쳐 올라왔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작가는 이러한 그의 심리를 숨기지 않고 보여준다.

하지만 이들은 중국을 탓하거나 원망하며 손 놓고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만은 않는다. 작품 속 등장하는 대부분의 화인들은 가난하고 혼란한 정세의 중국을 떠나 미국에 정착하여 살아가지만 시종일관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고수하며 중국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애국심을 견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늘 강한 그리움과 관심을 가지고 중국의 소식에 관심을 기울인다. 또한 자신들이 미국에서 하층 민으로서 살아가며 겪어야만 했던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도 중국을 탓하기보다는 중국이 잘되어 자신들이 겪어야 했던 치욕을 씻을 수 있기를 바라며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살아간다. 작품 속 화인들은 자신들이 미국에서 당했던 온갖 차별이 결국 자신들의 출신국인 중국이 힘이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바로 중국이 부강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화인사회가 평화롭기를 바란다.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화인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개인의 성향이나 성격에 따라 의견이나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정치적 입장은 국공 양당이 극명하게 나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산당과 국민당의 대립, 국민당의 붕괴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은 화인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 왔으며, 차이나타운 어디에서든 사람들은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작품 속 주인공들은 공산당을 지지하고 있기에, 국민당을 지지하는 화인들과의 대립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지만 작가는 작품 속 인물들이 화인사회의 충돌을 지양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작품 속에서 드러낸다. 다음의 일화를 예로 들 수 있다.

리하오란은 화교중학교(華僑中學)에서 중학생들의 중국어(國文)와 역사 수업을 맡아서 가르치는데, 수업을 진행한지 3개월이 되었을 무렵부터 그에게 고민거리가 생겼다. 자신이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역사교과서에 기재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이 항일 전쟁이든 국공전쟁이든 모두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이를 두고 고민을 하던 리하오란은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왜곡된 역사를 지적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동료 선생인 자오궈창(趙國強)에게 전달하며 역사적 자료를 보충하는 것에 대해 상의해보지만 자오궈창은 이러한 의견에 강하게 반대한다. 리하오란은 의견 충돌로 갈등상황이 생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대화를 끝낸다.

또 작품에서는 날이 갈수록 급변하고 뒤숭숭해지는 대륙의 형세로 인해 화인사회도 영

향을 받는 것을 보여주지만 이들은 화인사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우려하는 것을 보여주며, 갈등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작품의 시대적 배경인 1949년, 국공내전의 상황이 절정으로 치닫게 되면서 중국 공산당이 난징을 점령했다는 소식과 국민당의 붕괴,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은 차이나타운에 큰 반향을 일으킨다. ‘청년연합회(青聯)’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기념행사를 준비함에 따라 이들과 정치적 성향이 다른 인물들이 훼방을 놓는다. 또한 학교에는 정치적 색채가 짙은 문구의 표어가 내걸리는데, 이를 보고 학교를 당쟁의 장소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과 이것은 애국행위라고 하는 이들로 의견이 나뉘지만 충돌과 대립 등 갈등상황을 피하려고 한다. 작중인물 리하오란의 다음과 같은 말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이런 일로 화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리하오란이 리홍(李虹)에게 말했다, “비슷한 일들이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영리한 법을 배워서 그들과 정면으로 부딪칠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이 훨씬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sup>86)</sup>

작품에서 화인사회의 정세는 표면에 잘 나타나지 않고 내부가 아주 복잡하기에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여도 내부는 긴장감이 가득하다고 설명한다. 이는 반대로, 긴장감이 가득 해도 화인사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겉으로 드러내지 않기에 가능한 것이다.

넷째, 모든 갈등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한다. 작품 속 화인사회는 부지런히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듯 보인다. 작품 초입부에서 이들은 미국 이민국의 화인에 대한 차별에 대항하여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미국에서 살아가기 위해 자신들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용기 있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간다. 이들은 비록 미국 사회로부터 배척당하지만 소극적인 자세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숨기며 살아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해서 미국 사회에 흔적도 없이 흡수되어버리지도 않는다. 이들은 화인사회를 통해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져나가며, 그 뿌리를 잊지 않은 채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해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에 압도당하지 않고 자신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닌 중국계 미국인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무수히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지 않고 꿋꿋하게 일어나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간다. 오랜 역경 속에서 어쩌면 눈앞의 변화가 더디다고 생각하여 포기할 법도 하지만 작품 구석구석에는 그 모든 것을 바꿔보고자 분투하는 눈물의 노력

86) “用不著為此事動肝火，”李浩然向李虹勸告道，“類似的事情，今後肯定會有增無減的。我看，還是學聰明點，不必跟他們正面衝突，多做些力所能及的實際工作，會更有意義些。”黃運基，《奔流》，沈陽出版社，1996，pp.263-264.

과 희생이 새겨져있다. 물론 화인사회는 국공 대치 상황으로 인해 결국 협약한 분위기와 분열의 국면에 접어들게 되지만, 이러한 갈등상황이 부끄럽고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음을 보여준다.

“화인사회는 평안할 날이 없겠구나!”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화인동포들이 미국에서 살 궁리를 하며 세대를 거쳐 백인들로부터 차별을 받고 배척 당하는 것만으로도 괴로운데, 우리끼리 분발하지는 못할망정 서로 싸우고 있으니, 아이고! 부끄러운 일이로구나!” ‘화위안자오’의 한 늙은 ‘의원(議員)’이 한탄하며 말했다.<sup>87)</sup>

이와 같이 분열이 일어난 화인사회 내부에는 국민당과 공산당으로 이념이 나뉘어 싸우는 이 상황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그렇기에 이러한 목소리를 가진 이들이 머지않아 갈등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우리 화인사회가 지금 눈앞의 정치적 분위기에 질식할 것만 같다고 이야기하지. 자네들도 그렇다고 생각하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그는 이어서 말했다. “나는 아니라고 본다네. 자네들이 보기에 오늘 밤 이곳의 분위기가 아주 좋지 않은가? 모두들 알다시피 샌프란시스코는 밤이 되면 안개가 짙게 내려와 무겁게 깔리고, 사람들은 오리무중에 빠져들어 앞길이 막막함을 느끼지. 하지만 일단 새벽이 되기만 하면, 햇살이 밝게 비춰오고, 곧 안개가 흩어져버려 앞날이 밝아진다네.”<sup>88)</sup>

비록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화인사회 내부에서 정치적 갈등이 수면위로 드러나며 분열이 일어나지만 이는 잠깐일 뿐, 곧 밝은 앞날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작가의 정치 편향성이 작품 전체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작품 속 대다수의 화인이 공산당에 동조적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고대한다. 미국 화인의 역사를 보면 때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 이 밖에도 황원지의 정치 편향은 작품에서 선명하게 나타난다.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위진탕과 함께 신문을 제작하던 중 모두가 만장일치로 신문에 마오쩌둥이 직접 쓴 칼럼 〈잘 가라, 스튜어트 대사여(Farewell, Leighton Stuart, 別了, 司徒雷登)〉를 신기로 결정하

87) “華人社區將無寧日了！”人們紛紛搖頭嘆息。“華僑在美國謀生，世世代代受白種人歧視、排擠，日子已經夠難受的了，自己人卻不爭氣，你爭我鬥，唉！真不像話！”花園角一位老“議員”慨然而語。黃運基，《奔流》，沈陽出版社，1996，p.282。

88) “有些人說，我們華人社區，眼下政治氣氛，使人有窒息之感。你們認為對不對？”沒有人作出回應，他便又說下去：“我看不對。你們瞧，我們今晚這裏的氣氛不是很好嗎？大家都知道，舊金山入夜就霧大，陣陣壓來，人在五裏霧中，常常感到前路迷茫。但是，一到黎明，陽光四射，就霧散煙消，前途光明了。”黃運基，《奔流》，沈陽出版社，1996，p.284。

는 장면이다. 이 칼럼은 마오쩌둥이 1949년 8월 18일 쓴 것으로, 당시 주중 미국 대사였던 존 레이튼 스튜어트를 국공내전에서 국민당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쫓아내는 내용이다. 이렇듯 작품 속에서 간절히 중화인민공화국을 기다리던 대부분의 화인은 어쩌면 황원지 자신의 정치적 견해의 산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로 인해 화인사회가 서로 분열하여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도 작품에 드러난다.

작품 속에는 위넬주가 미국에서 자신이 동양과 서양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장면이 있다. 오랜 세월 황원지 자신을 포함하여 수많은 위넬주와 같은 화인들은 미국 사회로부터의 차별과 화인사회 내부의 정치적 갈등 등 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자신들의 확고한 기반을 다져나갔다. 현재 미국에서 살아가는 화인들은 서로 화합하여 당당하게 독자적인 그들의 고유한 영역을 지켜내고 있다. 작품 속 화인사회는 당장 정치적 이념으로 인해 뿌리가 얹힌 듯 보이지만, 세월에 거친 이들의 노력으로 이러한 분열을 함께 극복하고 결국 하나의 꽃을 피워내었다.

## 제5장 맷음말: ‘草根文學’ 《奔流》의 의의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화인의 이주와 화문문학과의 역사적 연관이 깊다. 1848년 금광의 발견에서부터 19세기 말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골드러시에 이르기까지 미국 서부의 한 유명한 이민 도시를 형성하면서 많은 중국인들이 그 골드러시 붐에 동참하여, 그들은 이 새로운 도시를 그것을 형상하는 이름인 금산이라고 붙여 주었다. 1910년부터 1940년까지의 ‘앤젤 아일랜드’의 시집에서부터 샌프란시스코 미국 중국 문학 및 예술계 협회(문예계)의 인문학 창작에 이르기까지 풀뿌리 경험의 표현과 재현은 샌프란시스코의 화인문학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는 미화문학의 무시할 수 없는 흐름으로, 유학생문학, 지식인문학(중산층문학), 자유주의문학과 함께 전체 미화문학의 역사지도를 구성한다.<sup>89)</sup>

황원지의 작품 《격류》는 이러한 점에서 연구되어야 할 대표적인 ‘풀뿌리문학’ 중 하나이다. 앞서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격류》의 맷음말에서 황원지는 자신의 작품은 허구이면서 동시에 사실적인 내용이 담겨있다고 했다. 그의 말처럼 《격류》에는 도입부터 결말까지 다양한 방면에 거쳐 미국에 정착해나가던 하층 화인들의 삶이 드러나며, 작가 황원지의 기억 속에 있는 이주현실의 모습이 재현되고 기록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격류》에는 화인의 이주와 정착의 과정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작품 속 시간적 배경은 1948년부터 1949년이지만, 작품 곳곳에 작중 인물의 회상과 대화를 통해 중국에서의 경험과 1948년 이전 초기 미국으로의 이주현실이 드러난다. 작품 속 묘사되어 있는 이주와 정착의 현실은 모두 하층 화인이 이주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현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황원지는 위년주가 미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서술하는 것과 동시에 초기 미국으로 이주한 화인들이 삶의 여정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이주와 정착의 경험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서술하였다. 황원지는 이 모든 과정을 그저 단순한 이주의 과정으로 간주하지 않고 역사적 사실과 경험에 근거하여 기록하였으며, 마치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재구성한 듯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작가가 작품 후기에서 밝힌 것처럼 직접 겪었던 실제적 경험과 주변에서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에 이주과정에서 겪었던 차별과 고난의 역사는 작가의 글을 통해 생생하게 드러난다.

재현되는 이주현실에는 이주 화인의 역경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황원지는 차이나타운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재현하여 그곳에서 살아가는 화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초기 이

89) 劉小新, 〈草根意識與歷史敘事——以舊金山華人作家群為中心〉, 《江蘇大學學報》, 第04期, 2006.

주자들은 차이나타운을 근거지로 하여 미국에 체류하였다. 작품에서는 샌프란시스코에 대한 묘사를 시작으로 당시 차이나타운의 모습을 사실적이고 정확하게 보여준다. 화인들은 이곳에서 중국식 생활방식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 황원지는 차이나타운의 공간을 구체적으로 재현하고 그 공간에서의 화인의 모습을 그려내었다. 사실적인 작품 속 구체적인 배경은 허구의 이야기에 더욱 실제성을 부여하기에 미국으로 이주하여 살아가는 하층 화인의 삶과 차이나타운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초기 미국으로 이주를 했던 시기부터 작품 속 시대적 배경인 1948년까지도, 화인의 사회적 지위는 확연하게 낮으며, 미국 사회로부터 차별과 배척을 당한다. 이들은 하층 노동자로서 무시를 당했고, 미국 사회에서 백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으며, 당시의 흑인과 같이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적 경험으로 인해 그들 내면에 스스로를 하층민으로 간주하는 생각이 자리 잡고, 계속해서 하층민으로 살아가려고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작품 속 화인은 대부분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 한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져야 겨우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다. 이처럼 여러 직업을 동시에 소화해 낼 수밖에 없는 그들의 경제적 수준과 그들이 하는 일을 통해 작품에서는 하층민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하층 화인이 미국에서 살아가기 위해 고단한 생활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회로부터 고립되어가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다.

미국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화인은 그들만의 화인사회를 형성하여 함께 살아간다. 그들은 중국의 가난과 어지러운 정세를 피해 미국으로 왔지만 미국 땅을 밟기 전부터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고난을 겪어야만 했다. 이러한 차별과 고난은 화인의 마음에 중국에 대한 강한 그리움과 애국심을 심어주었고, 화인사회에 영향을 주어 몇몇 특징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먼저, 미국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지만 화인사회를 중심으로 중국인으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발전과 화인사회 의 기여를 위해 화인사회에서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며 중국과 관련된 여러 활동을 진행 한다.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으로 그들의 생각을 공유하며 모임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조국 중국이 잘 되길 바란다. 이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차별의 원인을 자신들의 출신국인 중국이 부강하지 않은 것에 두고 있기에, 이러한 차별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바로 중국이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한편으로 자신들이 속한 화인사회의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 작품 속 화인사회는 두 가지 정치적 입장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산당과 국민당의 대립, 국민당의 붕괴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은 화인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 온다. 작가는 작품 속 인물들이 화인사회와의 충돌을 지양하고자 노

력하는 모습을 작품 속에서 드러낸다. 그리고 갈등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작품 속 화인사회는 화인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계속해서 투쟁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국정에 관심을 두고 화인사회에 기여하며 끊임없이 발전해나가고 분투해나간다. 물론 작품에는 그의 정치 편향 또한 강하게 드러나서 그의 마음이 중국에 대한 사랑인지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사랑인지 모호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 이후의 모든 화인 세대가 세월이 흘러서도 그 뿌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다.

작품 속 나타난 화인이 현재를 살아가는 화인과 동일한 면모를 보여준다고는 할 수는 없다. 화인은 작품 속 이민 1세대와 달리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중국에 대해 알지 못하는 중국계 미국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초기 화인은 조국인 중국과 비교적 강한 유대를 가지고,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거의 그대로 유지한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세대가 거듭될수록 이들은 미국과 점차 강한 유대를 갖게 되고, 이 과정에서 다중적인 정체성이 형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화인이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화인들은 중국에서의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뿌리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필자는 2016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중화문화센터(Chinese Culture Center, 中華文化中心)’에 소속되어 반년의 기간 동안 일을 하며 머물렀는데, 이때 중국 문화를 지키고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가까이서 보았다. 그리고 화인들이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을 목도하였다. 이들 중에는 중국어가 서툴러서 영어로 소통하거나 중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화인도 있었지만 모두가 자신들의 뿌리를 잊지 않으려는 듯 중국 문화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이를 배우고 소개하며 지켜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를 직접 보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작품 속에 나타난 화인과 화인사회의 모습을 본다면 이러한 결과를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난 화인들은 지금까지도 그들의 문화적 전통과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그들의 행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미국인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린위탕(林語堂)의 작품과 달리 황원지의 《격류》는 중국에서만 출판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황원지는 미국에서 그 자신의 작품보다는 미중의 우호문화 교류에 힘쓴 언론인으로서 인정받는 인물이며, 문학작품은 오히려 중국에서 높이 평가되었다. 어쩌면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작품에 선명하게 드러난 황원지의 정치적 색채 때문에 중국 대륙에 출판되었고,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인지도 모른다.

작가 황원지는 자신의 조국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작품의 도입부에서 이야기했

던 중국에서의 비참한 기억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작품 속에 중국에 대한 마음을 절절하게 새겨놓았다. 그렇기에 작품에는 미국에 이주하여 정착하는 화인이 세대를 거듭하여 미국 사회에 자연스럽게 융화되더라도 그 뿌리만은 잊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다. 황원지는 생전 자신의 손자에게 중국계 미국인이라는 특별한 신분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작가 황원지는 오랜 세월이 흘러서도 중국계 미국인으로서,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으려 노력했다.

세대를 거쳐 이주의 역사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미국과 좀 더 강한 유대를 갖고 있는 화인에게 있어서 《격류》는 화인의 이주현실과 삶의 모습을 소상히 알려줄 수 있는 미학 문학의 중요한 조각이다. 과거 이주와 정착의 경험이 없는 세대들은 이를 통해 과거의 이주현실을 보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얻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격류》는 지금도 그렇듯 훗날에도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사적, 문화적 자료로써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1. 작품

黃運基, 《奔流》, 沈陽出版社, 1996.

黃運基, 《狂潮》, 沈陽出版社, 2003.

黃運基, 《巨浪》, 花城出版社, 2012.

### 2. 단행본

程國君, 《全球化與新移民敘事——〈美華文學〉與北美新移民文學研究》, 科學出版社, 2017.

黃萬華, 《文化轉換中的世界華文文學》,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9.

黃萬華, 《美國華文文學論》, 山東大學出版社, 2000.

熊國華, 《美國夢——美籍華人黃運基傳奇》, 花城出版社, 2002.

周敏, 郭南 譯, 《美國華人社會的變遷》, 上海三聯書店, 2006.

周敏, 鮑靄斌 譯, 《唐人街》, 商務印書館, 1998.

### 3. 논문

고혜림, 〈북미 화인화문문학의 역사와 시기구분〉, 《중국학논총》 제38집, 서울: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12.

고혜림, 〈화인화문문학의 세계와 세계문학적 가능성에 대한 연구〉, 《중국지식네트워크》, 2017.

김연진, 〈19세기 말 20세기 초 미국 내 중국 이민 여성과 가족〉, 〈미국사연구15〉, pp.1-31, 2002.

김혜준, 〈북미 화인화문문학에 나타난 초국적 화인 가정과 그 의의〉, 《중국현대문학》 제92호, 서울: 중국현대문학학회, 2020.1.

김혜준, 〈시노폰 문학, 세계화문문학, 화인화문문학 – 시노폰 문학(Sinophone literature) 주장에 대한 중국 대륙 학계의 긍정과 비판〉, 《중국어문논총》 제80집, 서울: 중국어문연구회, 2017.4.

- 김혜준, <시노폰 문학(Sinophone literature), 경계의 해체 또는 재획정>, 《중국현대문학》 제80집, 서울: 중국현대문학학회, 2017.1.
- 김혜준, <화인화문문학 연구를 위한 시론>, 《중국어문논총》 제50집, 서울: 중국어문연구회, 2011.9.
- 이민자, <중국인 이민자의 미국사회로 통합과 차이나타운(Chinatown)의 역할>, 《중소연구》, 39권4호, 2016.
- 이병인, <해외 화인사회의 변화와 ‘국가’ 1840-1949>, 《아시아문화연구》, 2011, vol.24, pp.187-214.
- 陳涵平, 吳奕錡, <簡論美華文學中的“草根文群”>, 《廣東教育學院報》 第26卷 第4期, 廣東:廣東教育學院, 2006.5.
- 戴翊, <新視角、新主題和新的藝術形象——讀黃運基的長篇小說《異鄉曲》第一部《奔流》>, 上海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5卷, 第2期, 1998.4.
- 花建, <太平洋彼岸的華夏文化之花>, 《美國華文文學論》, 山東文藝出版社, 2000.
- 黃萬華, <草根階層的文學立言——黃運基小說創作論>, 《美國華文文學論》, 山東文藝出版社, 2000.
- 黃萬華, <美華文學本土性生存環境的構築——從《美華文化人報》到《美華文學》>, 《美國華文文學論》, 山東文藝出版社, 2000.
- 黃萬華, <“黃金”國度裏的“草根”文學>, 《世界華文文學論壇》, 第03期, 2000.
- 黃運基, <美華文學發展初探>, 《走向21世紀的世界華文文學》, 1999.
- 潔泯, <討論小說《奔流》的幾點意見>, 《美國華文文學論》, 山東文藝出版社, 2000.
- 劉小新, <草根意識與歷史敘事——以舊金山華人作家群為中心>, 《江蘇大學學報》, 第04期, 2006.
- 冉毓羚, <美華“草根文群”的唐人街書寫>, 《暨南大學》, 2016.
- 宋陽, <離散空間的衍變與再現——解讀美華歷史與文學中的天使島>, 《聊城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02期, 2019.
- 王性初, <移植之樹常青——華文文學的定位和舊金山華文作家群>, 《走向21世紀的世界華文文學》, 1999.
- 溫明明, <《美華文學》(1995-2009)研究>, 《暨南大學》, 2011.
- 徐乃翔, <一個真誠的人——記美國華文作家黃運基>, 《華文文學》, 第01期, 1998.
- 徐迺翔, <魂系中華、心連祖國的情結——評黃運基的《奔流》>, 社會科學輯刊, 1996.

- 楊雅麗，〈黃運基小說創作的草根心態〉，《暨南大學》，2006。
- 葉中強，〈歷史的另類文本——論黃運基的長篇小說《奔流》〉，《社會科學》，第12期，1998。
- 宗鷹，〈從美國文壇看“草根文群”的崛起〉，《走向21世紀的世界華文文學》，1999。

#### 4. 기타자료

陳瑞琳，〈美華文學的一座豐碑〉，“瑞琳讀書”，2013。



# 北美華人華文作家黃運基長篇小說《奔流》中出現的底層華人生活

金多斯

釜山大學校 教育大學院 漢語教育專業

## 中文摘要

華人是指長期居住在中國以外地區的漢族以及事實上被漢族同化的中國的部分少數種族。“華人文學”是指這些華人的文學，“華人華文文學”是指華人文學中使用“華文”創作的文學。北美華人華文文學從幾乎沒有自己文學活動的華人勞動者(苦力)時期開始，經過第一代留學生時期、1960年代台灣出身的華人作家時期等，又出現了講述唐人街底層華人生活的“草根文群”。“草根文群”是北美華人華文文學中獨特的創作群體或創作階層，他們長期生活在美國社會底層，艱苦奮鬥，在自己的作品中深刻反映美國底層華人的生活條件、想法和情感。本文通過“草根文群”的代表作家之一黃運基的長篇小說《奔流》，分析了作品中出現的社會底層華人的生活。

1948年，黃運基16歲那年，跟隨先移居美國的父親移居美國。他在美國過著底層華人生活，需要做各種勞動，盡管因經濟困難而輟學，但他還是不分晝夜地追求知識。這與他一生追求文化事業有很大關係。他的生活狀況稍好一些，就開始在報刊上撰文，致力於弘揚文化創作文學事業。繼而，黃運基完成《奔流》是因為“心裏有話要說”。黃運基在《奔流》的結語中說自己的作品是虛構的，但同時也是描寫現實的。正如他所說，作品從開端至結局都真實展現了移居美國的華人生活。

早期移居美國的華人，大部分都是從事金礦開采、鐵路鋪設等美國西部大開發事業的勞動者。他們大都經濟貧困、教育及文化水平低下。當時美國的工資水平是中國的10倍以上，因此貧困的人們懷著美國夢移居美國，越過遙遠的大海，開始在美國這個新地方定居生活。《奔流》真實再現了華人在移居與定居美國過程中所經歷的苦難。他們的苦難從中國的貧困開始，繼而延續到美國的歧視和痛苦。黃運基在按照時間順序敘述劇中人物移居美國過程的同時，又以回想早期移居美國華人生活曆程的方式，真實地描寫和敘述了他們移居美國的經曆。

另外，作品還真實再現了唐人街和以唐人街為基礎生活的華人的形象。早期華人移居者主

要生活在唐人街，保持使用漢語、中國式的生活方式以及中國的風俗習慣。對他們來說，唐人街是中國式的社會、文化、休閑活動的中心，是連接華人與中國家人與家鄉的通道。作品真實地描繪了美國舊金山唐人街的面貌，通過這些描繪也生動再現了當時生活在美國唐人街的華人面貌。

從《奔流》中可以看到長期生活在社會底層的華人的社會地位。作品體現出華人沒有受到與白人同等的待遇，而是成為人種歧視的對象。經濟上的不充裕，在相對惡劣的居住環境中生活，靠打幾份工來維持生計。由於這種社會地位和底層居民的經驗，出現了華人將自己限制在社會底層生活的面貌。雖然這並不理想，但可以看作是一種不可避免的底層居民的特征，即草根性特征。在作品中，由於這種草根特征，華人自認為與白人的社會地位不同，對任何不當的事情都採取忍耐態度，漸漸被社會所孤立。

華人離開中國定居美國的主要原因是貧困導致的生計問題、中國政治的不穩定、美國的勞動力需求激增等。但是根據白人排斥華人工人，認為華人勞動者的廉價勞動力威脅到白人就業的主張，美國於1882年實施《排華法案》，限制華人勞動者入境。在這樣的背景下，美國社會蔓延的對華人的歧視，喚起了華人內心對祖國中國的思念與鄉愁。作品中登場的華人社會中，這樣的特征非常明顯。劇中人物以華人社會為中心，保持中國人的身份認同，希望中國發展順利，並克服華人社會內部的矛盾。

草根經驗的表現和再現，代表了北美華人華文文學不可忽視的一個潮流。與留學生文學、知識分子文學（中產階層文學）、自由主義文學一起，構成了整個美華文學的曆史地圖。黃運基的作品《奔流》在這一點上，是需要研究的代表性“草根文學”之一。作品從開始至結束，從各個方面展現了移居定居美國的底層華人的生活，還原並記錄了作家黃運基記憶中的當時的面貌。預計隨著今後對美華文學關注度的提高，對真實描寫移居生活的“草根文學”的關注和研究也會提高。因此，“草根文學”的代表作品《奔流》像現在一樣，今後也將作為連接過去和未來的重要曆史、文化資料發揮作用。

## 감사의 글

대학원 생활을 학위 논문이라는 의미 있는 열매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분의 도움으로 가능한 일이었다. 이 글을 통해 부족하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먼저 이 논문이 나오기까지 큰 도움을 주셨던 지도교수님이신 김혜준 선생님께 감사 드린다. 대학원에 진학하고 첫 학기, 선생님의 중국문화연구 수업을 통해 중국의 역사와 문화가 얹힌 중국 문학의 배경을 접하게 되었다. 선생님은 구체적이고 폭넓은 강의로 중국 문학에 대해 이해하고 흥미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셨고, 동시에 비평과 토론이라는 과정으로 스스로 작품에 대해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체득하게 해주셨다. 이러한 학문적 흥미와 비판의식은 연구자의 기본 자질로써 논문을 쓰는 동안 단단한 베풀목이 되어주었고 덕분에 논문 연구를 지속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선생님을 통해 중국 외 세계에 두루 퍼져있는 화인화문학을 알게 되었다. 선생님은 화인문학을 연구하고 싶다는 나의 의견을 존중해주셨고, 논문의 주제와 연구 방향을 스스로 생각하도록 이끌 어주셨다. 그 밖에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상황을 격려해주시며 기본적인 논문 작성법부터 완성도를 높이는 것까지 꼼꼼히 지도해주셨고, 바쁘신 중에도 논문을 검토해주시며 마지막까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다. 대학원 생활 동안 늘 지지해주시고 가르쳐주시며 성장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선생님, 긴 시간 선생님의 지도를 통해 어버이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논문을 심사해주신 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최진아 교수님과 吕曉琳 교수님께 감사 드린다. 두 분 모두 논문심사 전후로 시간을 내어주셔서 찾아뵙기도 하고 메일을 주고받을 수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논문을 적극적으로 읽어주셨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셨다. 최진아 교수님은 논문과 관련한 참고문헌부터 논문의 주제와 내용까지 신경 써주셨고, 논문에 지도를 넣는 등 내용의 독창성과 명료성을 드러내는 다양한 방안을 성심껏 제안해주셨다. 吕曉琳 교수님은 논문 전체의 정확성에 초점을 맞춰 세부적인 사항들을 검토해주셨고 논문의 범주 설정에 대해 조언해주셨다. 두 분 교수님의 아낌없는 비평과 의견은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부산대학교 현대중국문화연구실의 송주란, 梁楠, 畢文秀, 문희정, 최하경, 안소민 등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梁楠 선생님은 부족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논문의 중국어 문장을 도와주셨다. 그리고 함께 석사 논문을 지도받으며 의지했던 고민경 선생님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모든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석사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다.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과 화인의 역사,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미국 샌프란시스코 ‘Chinese Culture Center’에 그리움과 고마움을 전한다. 그곳에서 어린 나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모든 분들, 그리고 나눠주신 애정과 배려 모두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 논문을 연구하는 동안 행복했다.

대학원 생활 동안 기도와 보살핌으로 지원해주신 부모님과 시부모님, 그리고 할아버지와 가족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가족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다. 특히 가까이서 늘 도와주고 응원해준 남편 박예찬에게 고마움과 사랑의 마음을 전한다.

2021.07.25. 김다슬.

